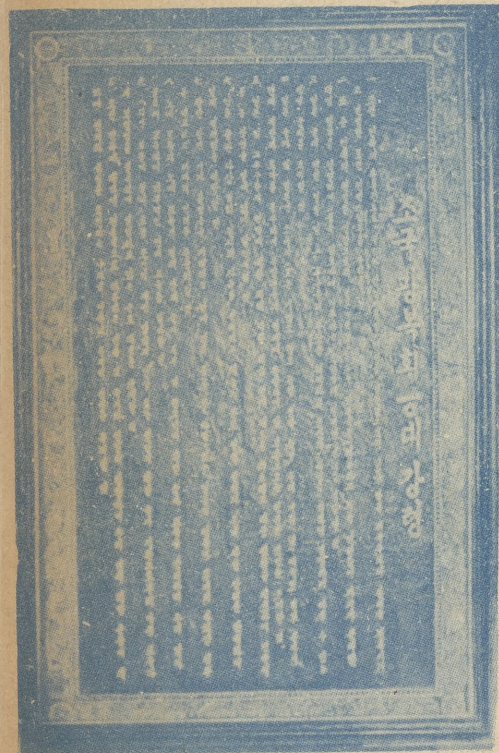
소년단

1958. 9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전국 아동 작품 및 교편물 전람회장에서

《국장》

이것은 비단 실로 수 놓은 것인데 은산 초등 학원 수예 크루쇼크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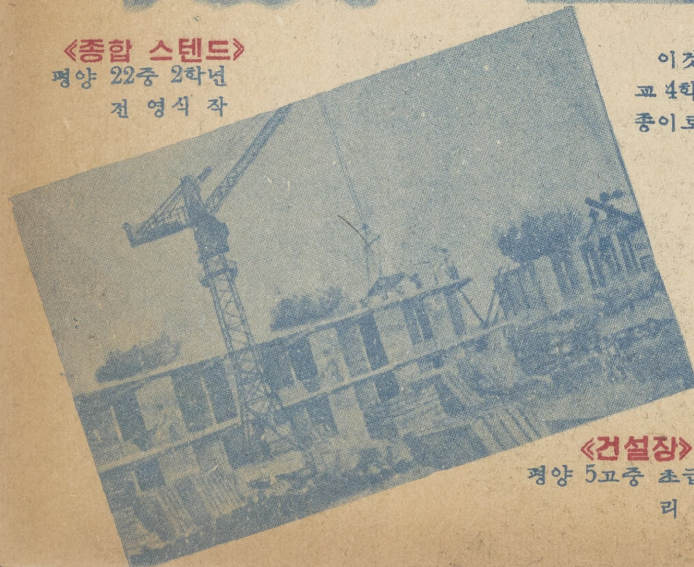
이것은 함흥 사전 300명의 형님 누나들이 힘을 합해 나무에 글을 칼로 새겨서 만든 것입니다.

《동생》

김 용철 작(초중)

《종합 스텐드》

평양 22중 2학년

전 영식 작

《무지개 잡이》

이것은 함흥 사전 부속 인민 학교 4학년 공작 크루쇼크원들이 색 종이로 붙여 만든 공작품입니다.

《달나라 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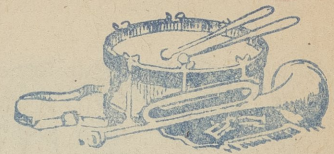
이것은 밀 짚으로 붙여 만든 공작품입니다.

황남 연안군 장공 인민 학 3학년 리 금자

《건설장》

평양 5고중 초급반 2학년

리 준덕 그림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9호 내용

☆공화국 창건 열 돐 명절을 맞이하여☆

본사 기자 **박 정렬** 　　　　사진 리 종록 촬영

다가 오는 9월 9일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지 열 돐이 되는 날입니다.

편집부는 이 날을 뜻깊게 맞이 하기 위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잡지 《소년단》의 독자 동무들과 자리를 같이 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은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것은 오직 조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좌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가요? 우리 모두 끝까지 읽어 보기로 합시다.

☆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

한 광호—항일 유격 투사이신 김 옥순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무엇 때문에 조국을 떠나 압록강을 건느셨습니까?

김 옥순 어머니—나는 여섯살 때에 부모를 따라 중국 동북으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에서 얼마나 천대 받고 굶주렸으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갔겠습니까? 점점 나이 들면서 나에게는 우리는 왜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이 의심은 때마침 우리 마을에 김 일성 원수님이 직접 파견한 고 례라는 젊은 공청원 아저씨가 와 계시면서야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좌담회를 하는 장면☆

고 례 아저씨는 나처럼 가난한 집 애들에게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네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에도 다닐 수 없으며 또 잘 살 수도 없는 것은 모두 조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공부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하루 바삐 조국을 찾아야 한다.》

고 례 아저씨로부터 당시 항일 유격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그 분들을 존경하며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 지군하였습니다.

항일 유격 투사들처럼 훌륭한 조국의 딸이 되리라고 결심한 나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아동 혁명단에 입단했습니다.

김 우철—그 때 아동 혁명단 동무들은 조국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김 옥순 어머니—아동 혁명단에 들어온 동무들은 모두 왜놈들에게 조국을 빼앗긴 것을 슬퍼하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왜놈들과 지주를 반대하여 싸울 것을 맹세한 것만큼 항일 유격 투사들의 일을 적극 도와 드렸지요.

낮에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동무들처럼 삐오네르 생활도 했답니다. 삐오네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례절을 지키며 동무들을 사랑할 줄 알며 약속을 지킬 줄 아는 훌륭한 어린이로 자라기 위해 힘썼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동 혁명단원들은 깊은 밤에 련락을 갔다 오라는 임무를 받가이 맡았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놈들이 욱실거리는 곳에 가서 정찰도 해 왔으며 식량 운반, 유격대원들의 길 안내도 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세영 선생—아동 혁명단원들과 김 옥순 선생은 조국의 해방을 자기의 생명보다 몇 배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국내 소년들도 생활이 비참하면 비참해 질수록 우리의 원쑤가 누구인가를 점차 알게 되였지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참 눈물겨웠습니다. 돈 몇전이 없어 모자를 사지 못하고 마분지에 실을 매서 쓰고 다녔으니 더 말할 여지가 없지요.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으나 마나 했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자라야 했을가요. 그것은 두 말할것도 없이 그 때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동무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원 홍구 선생—내 나이 일흔입니다. 그러니 리조 말년에서부터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거쳐 해방 후 오늘까지 살아 온 셈이지요.

《야!》(감탄)

이처럼 오래 살면서 나는 자기의 나라와 정권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며 가련한가에 대하여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쓰라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조 때 조선 인민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건 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는 《한일 합병》으로 온 나라를 그만 일제놈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리 완용이란 놈이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 먹었지요.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진 조선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리 승만이란 놈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동무들도 다 알고 있다 싶이 지금 남반부에서는 리 승만이란 놈이 리 완용이처럼 미제에게 나라를 팔

참가한 선생님들

원 홍구 선생 (과학원 생물학 연구실 실장, 후보 원사, 교수)
박 세영 선생 (시인)
김 옥순 어머니 (항일 유격 투사)
송 덕훈 아저씨 (로력 영웅)
김 영상 형님 (공화국 영웅)

참가한 소년단원들

김 계홍 (평양 제 15 중 학교 대위원장)
신 성자 (평양 제 1 녀 고중 대위원장)
김 연 (평양 제 1 중 학교 대위원장)
리 선자 (평양 제 33 중 학교 대위원장)
한 광호 (평양 제 40 중 학교 대위원장)
백 봉룡 (평양 제 2 중 학교 대위원장)
김 우철 (평양 제 28 중 2분단 위원장) 외 19명

아 먹고 있습니다.

리 승만은 미군놈들이 남조선에 원자탄을 들여 오며 유도 무기 기지까지 만들고 우리 조국을 전쟁 터로 만들려는 데도 갈이 나서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신 성자—그러면 김 옥순 어머니! 우리의 귀중한 조국을 찾기 위하여 항일 유격 투사들은 그전날 어떻게 싸웠습니까?

김 옥순 어머니—나는 항일 유격 투사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이야기보다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혁명 투사들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를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렵니다.

항일 유격 투사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 조국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일제의 식민지 통치밑에서 조국을 건져 내고 근로하는 인민의 나라에 행복한 락원을 건설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혁명 투사들은 식량이 모자라서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으면서도 굴함이 없이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령하 40도가 넘는 눈보라 속을 행군하면서도 혁명 투사들은 나무 그루에 《조선 독립 만세!》《조선 혁명 만세!》라는 구호를 써 넣었고 감옥에 가치여 있으면서도 간수놈의 눈을 피해 가며 담'벽에 자기의 피로 《조선 독립 만세!》를 새겨 놓았습니다.

혁명 투사들은 원쑤들의 야만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조직의 비밀을 지켜 내였고 죽으면서도 《조국 광복 만세!》를 웨쳤습니다. (항일 투사들을 경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잠시 침묵에 잠겼다.)

김 영상 영웅 형님—우리 인민 군대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그처럼 영웅적으로 싸워 이긴 것도 바로 혁명 투사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이은 데 있습니다.

☆ 공화국 기'발 밑에서 ☆

백 봉룡— 영웅 형님 부탁합니다. 우리는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 받은 인민 군대에서 영웅 형님의 투쟁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 영상 영웅 형님—해방 후 우리 인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바라고 바라던 영광스러운 조국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나는 해방 후에야 비로소 학교에 다니게 되였습니다. 나는 커다란 희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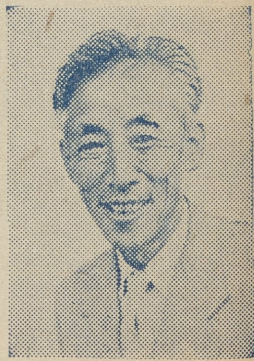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땀으로 이룩해 놓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전쟁의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나는 더는 가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귀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펜을 총으로 바꿔 쥐고 전선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민 군대는 항일 유격 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자기의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원쑤놈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비'발치는 적탄 속에서도 사랑하는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앞으로 앞으로 내 닫는 전사들의 마음 속에는 항일 유격 투사들에게서 물려 받은 불타는 애국심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승리에로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희망, 나의 생명,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희망, 고귀한 생명, 큰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김 옥순 어머니◇

◇박 세영 선생◇

19세의 젊은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아 전우들의 진격을 보장한 리 수복 영웅의 일기장에서 우리는 그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리 수복 영웅의 마음 뿐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 수 많은 고지에서 원쑤를 무찌른 우리의 용사들의 마음이며 희망이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211 고지의 가렬한 전투에서도 원쑤를 무찔러 승리했고 영원히 공화국 기'발을 고지에 휘날리게 하였습니다.

1951년 가을! 나는 1,211 고지 방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미 영 침략자들은 군사 전략상 아주 주요 지대인 이 고지를 빼앗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 해왔습니다. 하루에도 고지에는 3만 여 발의 포탄이 날아 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곤난이 닥쳐 왔지요. 여름내 장마로 후방 수송로가 끊어져서 탄약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어떤 곤난이고 박차면서 포 진지를 파는 일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전투의 짬짬을 타서 고지에 교통호와 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피로써 고지를 지키자!》

《원쑤놈들에게 조국의 한 치의 땅도 내주지 말라!》 이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우리 조국의 땅을 지켰으며 원쑤놈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습니다. (이 때 박수 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송 덕훈 아저씨—산'골에서 칡뿌리를 캐며 지주네 머슴 살이를 하던 내가 오늘은 떳떳한 나라의 주인으로 그리고 로력 영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는 쏘련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조선 사람으로 태여 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쏘련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영웅 조선 인민이라고 손을 잡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5•1절, 8•15 날이면 모쓰크바의 거리거리에 여러 나라 기'발과 함께 펄럭이는 우리의 기'발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 기'발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정 때에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주권을 가졌으며 우리의 기'발을 가진 우리들이 어찌 우리의 기'발을 사랑하지 않으며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박 세영 선생—수 많은 혁명 투사들의 피와 유언이 깃들은 우리 공화국 기'발 밑에서 나는 지금 행복에 찬 조국을 마음껏 노래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나는 제 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축전의 나날은 잊지 못할 가지가지의 추억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기가 세계 여러 나라 국기와 함께 휘날리는 모쓰크바에서 체육, 예술 축전 등에 당당한 조선의 청년 대표로 출연하여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영예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1925 년 대에 리 기영 선생이나 한 설야 선생, 송 영 선생들이 카프를 조직하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쓴 문학 작품들이 오늘은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화국 기'발 아래 세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이

◇원 홍구 선생◇

◇김 영상 형님◇

◇송 덕훈 아저씨◇

행복은 김 일성 원수에 의해 지도되는 로동당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동무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기'발 밑에서 훌륭히 자라 나기 바랍니다.

☆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

송 덕훈 아저씨—눈물겹던 왜정 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조금도 일'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며 도시와 마을들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빨리 꾸릴 수 있을가? 하는 생각 뿐입니다.

우리 당은 일하면서도 꾸준히 연구하도록 많은 방조를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조립식 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우리 당은, 우리 조국은 더 없이 귀중합니다. 이 귀중한 모든 것을 위하여 나는 앞으로 나의 모든 정열을 바쳐 더욱 힘차게 일하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도 우리 당에 충실한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힘쓰십시요.

원 홍구 선생—나의 과학 연구 사업은 공화국의 품 속에서야 비로소 앞길이 활짝 열리였습니다. 당과 정부에서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고 설비를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과분한 배려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가? 하는 생각 뿐입니다.

나는 생명이 계속되는 날까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켜 주는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나라 자연 자원을 꾸준히 연구하여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도 사회주의 락원에서 자라며 배우는 행복을 잊지 말고 장차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김 옥순 어머니—우리는 아직 통일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모임에 남반부 소년들도 한자리에 모였다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 어린이들을 불행과 죽음의 구렁 속에서 헤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불쌍한 남반부 어린이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리 선자—우리들은 이처럼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져 보기는 처음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이 행복이 어떻게 이루워진 것인가를 명심하고 혁명 투사들처럼 조국을 사랑하며 그분들처럼 우리 당과 조국에 충직하렵니다.

한 광호—나는 오늘 좌담회를 통하여 과거 우리 부모들이 나라 없는 슬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 왔는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행복을 베풀어 주는 당과 공화국 정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더 잘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생명보다 몇 천만 배 귀중한 조국을 다시는 어떤 원쑤에게도 내주지 않기 위하여 장차 조국을 튼튼히 지켜 나가는 인민 군대가 되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 연구 크루쇼크에서 혁명 투사들의 애국심을 더 잘 배우겠습니다.

기자—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잊지 못할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슴 속 깊이 오래오래 간직합시다.

여러 선생님들, 우리 독자 동무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소년단이란 어떤 단체이며 소년단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조선 소년단이란 어떠한 단체입니까?

조선 소년단은 항일 유격 투쟁 시기 김 일성 원수께서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신 아동 혁명단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소년단은 영광스럽게도 조선 로동당의 깊은 사랑과 배려 밑에서 민청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소년단은 우리 나라 소년들을 앞날의 믿음직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열렬한 애국 투사로 교양하며 준비시키는, 영예로운 소년들의 대중적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선 소년단을 두고 말하기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을 항상 잘 배우며 그것을 훌륭히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잘 준비하는 어린 세대들의 행복한 품이라 하며 믿음직하고 슬기로운 꽃봉오리들의 단합이라 합니다.

소년단은 소년단원들을 훌륭히 교양하기 위하여 많은 유익한 사업들을 조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훌륭한 사업이겠습니까?

그것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일입니다.

소년단은 또한 소년단원들에게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의 행복한 생활의 원쑤가 바로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르쳐 주며 그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높여 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소년단은 쏘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여러 나라의 소년단들과 굳게 뭉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한 미래 투사로 함께 배우며 함께 준비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또한 평화를 요구하며 참된 배움의 길을 찾아 싸우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과의 친선을 위해서도 힘씁니다.

소년단은 매개 소년단원들에게 학습 목적을 똑똑히 아르켜 주며 소년단원들에게 규률 있고 문화적이며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나아갈 줄 아는 참된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높여 주며 여러 가지 흥미 있고 활기 있는 사업을 조직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조선 소년단원의 이름을 지니였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입니다.

소년단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년단원! 이렇게 자기를 불러 볼 때 소년단원 동무들은 언제나 입단 서약식 날 여러 동무들 앞에서 다짐한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회상할 것입니다. 《소

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이 해야 할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꼭 잊어서는 아니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을 연구하고 그를 모범 받는 일입니다.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애국적 혁명 투사들의 모범을 잘 배워서 그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 줄 알며 조국과 인민의 원쑤를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기여 들려는 보이지 않는 원쑤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을 잘 학습하고 부모들과 마을 어른들에게 이것을 선전하며 또한 그들이 모르는 것을 잘 깨우쳐 주는 일에도 열성껏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과 실천을 통하여 더욱 잘 그것을 알며 장차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잘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동무들은 아무리 좋은 지식을 배웠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건설에 훌륭히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항상 부지런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로동은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벌써 소년단원들은 《뜨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학습과 로동을 훌륭히 결부시키면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크게 도왔으며 또 돕고 있습니다. 이는 참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 생활에서 부닥치는 사소한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학교와 가정과 거리 등 어데서나 공중 도덕과 집단의 규률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부모들과 웃 어른들을 존경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시다 희생된 애국 렬사, 피살자, 전사자 가족들과 인민 군대 후방 가족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의 동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서로 힘을 합하여 훌륭히 해 나가며 동무들이 나쁜 행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동무들을 사랑한다 하여 동무의 잘못을 숨겨 주어서는 참된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항상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며 학교와 가정을 청소하고 위생 개조 사업에 솔선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 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소년단 조직에 대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의 규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각종 모임에서 좋은 의견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서슴 없이 제기하며 반과 분단, 대 모임에서 결정한 일들과 소년단의 위임에 대하여서는 어김 없이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년단의 주인은 소년단원 자신들인 것만큼 자기들이 선거한 열성자들을 잘 도와 주며 소년단 사업이 흥미 있고 활기 있게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의 상징인 소년단기'발들과 붉은 넥타이, 휘장 등을 귀중히 여기며 항상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소년단원들은 입단 서약식에서 엄숙하게 맹세한 것처럼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영예로운 건설자로 될 수 있습니다.

바늘

그림 유 현기

글 박 달

1941년을 도리켜 보면 그 때는 참으로 온 세계가 분주한 때였습니다.

그 해는 독일 파시스트놈들이 평화스러운 쏘련을 침공하기 시작한 해이며 동쪽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놈들이 미국과 영국을 향해 전쟁을 시작한 해입니다.

일본놈들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 보겠다고 우리 조선 애국자들을 마구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고 수 많은 로동자들을 보국대란 이름으로 군수 공장에 끌어 갔고 농민들에게서는 그들이 피땀 흘려 지어 놓은 곡식을 소위 공출이라 하며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 해 3월에 함흥 지방 법원이라는 일본 재판소에서는 중국 공산당 장백현 위원회와 조선 민족 해방 동맹(혜산 사건) 사건 공판이 시작되였지요. 원래 우리를 체포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10월부터였는데 놈들은 그 동안 우리들이 자수하지 않는다 하여 근 4년 동안이나 감옥에 넣고 시들게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무들 중에는 감옥에서 놈들의 가혹한 고문을 이겨내다 못해 끝내 희생된 동무들도 많았습니다. 이 날 공판정에 나온 동무들도 모두 몸이 쇠약해서 낯색들은 백지처럼 하얬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서로 헤여져서 독방과 잡방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감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한자리에서 만나 보기는 몇 해만에 처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반가워 굳은 악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섰던 동무들 끼리 서로 손을 만져 보기만 해도 마구 때리는 형편이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보고 웃고

고개를 조금 숙여 경례하는 정도로 인사를 하였지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였겠습니까.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이런 악독한 천대를 받으니 말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다음 나는 혼자 불리워 가서 공판 조사를 받게 되였습니다. 그 전날에도 우리들은 그렇게 경계가 심한 가운데서도 기회를 보아 서로 말로서 공판을 부인할 것과 끝까지 우리의 투지를 꺾지 않고 공판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서울 복심 법원으로 상소하자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그래 나는 이번 혼자 공판 나갈 때는 바늘 하나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늘은 감옥 안에서 장갑 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가져 왔다가는 저녁에 내 가는 것인데 공판 나갈 때 가지고 갈려고 전날 저녁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감옥 자동차를 타고 재판소로 가니까 《비둘기 둥이》(재판하는 날 림시로 쓰는 영창)에 나를 혼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 나는 가지고 갔던 바늘로 그 벽에다가 선전문을 썼습니다.

《조선 인민 혁명군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경찰이 억지로 만든 조서를 가지고 우리를 불법 재판한다면 우리는 서울로 상소하자》

《조선 혁명 만세!》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박 달이 썼다.》

《비둘기 둥이》가 전부 열네 칸인데 한 칸에 쓰고 생각해보니 열세 칸에 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판정에 나갔다가 오전 조사가 끝나고 점심 시간이 되였습니다. 다시 《비둘기 둥이》에 들어 올 때 간수놈이 묻기를 《네가 들어 갔던 칸이 어디야》

《이 칸이요.》 하고 나는 다른 칸으로 들어 갔습니다. 나는 또 그 칸에다가도 우에서와 같은 선전문을 바늘로 썼습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나서 변소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는 또 다른 칸에 들어 가서 그런 선전문을 써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실 저 구실 부쳐서 그 날로 여섯 칸에다가 선전문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간수놈에게는 한 번도 들키지 않았지요. 본래도 《비둘기 둥이》 벽에 써 놓은 글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씌여 있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나의 눈에 띄우는 것은

《조선 독립 만세!》

《나는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간다.》

이것으로 보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였는지 가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선전문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동무들이 앞으로 이 《비둘기 둥이》에 들어 왔다가 그 선전문을 본다면 반드시 사기가 오를 것이며 또는 공판 투쟁에서도 용기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무들은 이 선전문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건으로 들어 온 동무들과 한감방에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들어 갔다가 보고 전해 주리라는 것까지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재판에서 투쟁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37년 6월 4일에 일어난 보천보 사건은 김 일성 원수가 유격대를 인솔하시고 하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혜산 경찰서에서는 이 보천보 사건에 갑산 내에서 활동하던 조선 민족 해방 동맹 동무들까지 함께 했다고 생트집을 걸고 이십 여 명의 우리 동무들을 학살하면서 꾸며 놓은 조사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짓으로 꾸며 낸 이 조사서를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흘만에 감옥 계호계(감옥 내 기관)에서 오라는 호출이 나서 나는 간수 한 놈에게 끌리여 갔습니다. 그런데 짐승 같이 험하게 생긴 간수장놈은 내가 《비둘기 둥이》에 쓴 선전문을 그대로 옮겨 쓴 종이와 부러진 나무 젓가락들을 책상 우에 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차 《비둘기 둥이》에 쓴 것이 놈들에게 탄로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네가 쓴거지?》하고 간수장놈은 눈을 부라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썼소!》 나는 속으로 놈들을 웃어 주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젓가락으로 선전문을 쓴 것으로 안 모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새끼에게 수쇠를 채우고 허리에 쇠줄을 매서 손을 달아 매.》 하고 간수장놈은 간수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간수는 나를 끌고 다른 칸에 가서 수쇠를 뒤로 채우고 허리에 쇠줄을 얽어 매 가지고 간수장 있는 데로 끌고 갔습니다.

《수쇠를 더 든든히 채워라》 하고 간수장놈은 또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쇠 채운 손을 앞으로 가져 오고 허리에 쇠줄을 또 채웠습니다.

《너는 감옥 규정에 의하여 5일간 운동, 목욕 금지와 3개월간 문서 금지를 명령한다.》 하고는 나를 다시 감방에 쳐 넣었습니다.

운동은 감옥 안에서 매일 15분 동안 밖에 내다가 조그마한 칸 안에서 시킵니다. 그러니 그것을 5일간 못하는 셈이고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 시키는 오리 멱 감듯 하는 목욕인데 그것을 한 번도 못하는 셈입니다. 3개월 간 문서 금지라 하는 것은 석달 동안 책도 보지 말며 신문, 잡지도 보지 말며 외부에서 오는 편지도 받지 말며 외부에 편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은 감옥 도서실에서 한 달에 한 책씩 빌려 주는 책도 있고 집에서 보내 준 책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개가 종교 서적 아니면 자연 과학에 대한 책들입니다.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히도》(사람)라는 감옥 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한부를 가지고 여러 방에서 나누어 보기 때문에 한 방에서 세 시간 가량 보게 됩니다.

또는 《미찌》(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돌려 보이는 감옥 잡지입니다. 이 두 가지 《히도》, 《미찌》라는 것을 가지고 겨우 사회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국제 정세를 약간이라도 알게 되는데 그것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라야 알게 됩니다. 이거나마 3개월 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후 닷새가 지나 갔습니다. 감옥 계호계에서 부르기에 가 보았더니 운동과 목욕 금지는 해제되였다고 하면서 손에서 수쇠를 풀어 주더군요. 인제는 좀 자유롭게 되였구나 하고 생각한 것도 그시 뿐이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다시 수쇠와 허리쇠를 가져다가 나에게 채워주더군요. 그래서 나는

《무슨 리유로 또 이것을 채우는가?》하고 질문하였지요.

《너는 마음이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수쇠를 더 차고 있어야 해.》 하고 간수장놈이 을렀지요. 그런데다 놈들은 다시 운동과 목욕을 시키지 않아서 나는 간수장놈에게 강경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놈은 수쇠는 그냥 차고 운동과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하러 수쇠 차고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그 주변 감방에 있던 우리 동무들이 이것을 내다 보고 소제부(감방 안에서 소제도 하고 식사도 공급하는 잡범)들을 시켜서 나에게 그 리유를 물어 왔습니다. 그래 나는 소제부들에게 내가 《비둘기 둥이》에 선전문을 썼다는것과 그 내용을 우리 사건 동무들께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 후 그 선전문 내용은 전체 동무들께 널리 알려져서 공판 투쟁에 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해 5월 21일부터 3일간 우리들은 집단적으로 출정하여 공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우리들은 한결 같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경찰놈들의 폭압 행위를 반대 항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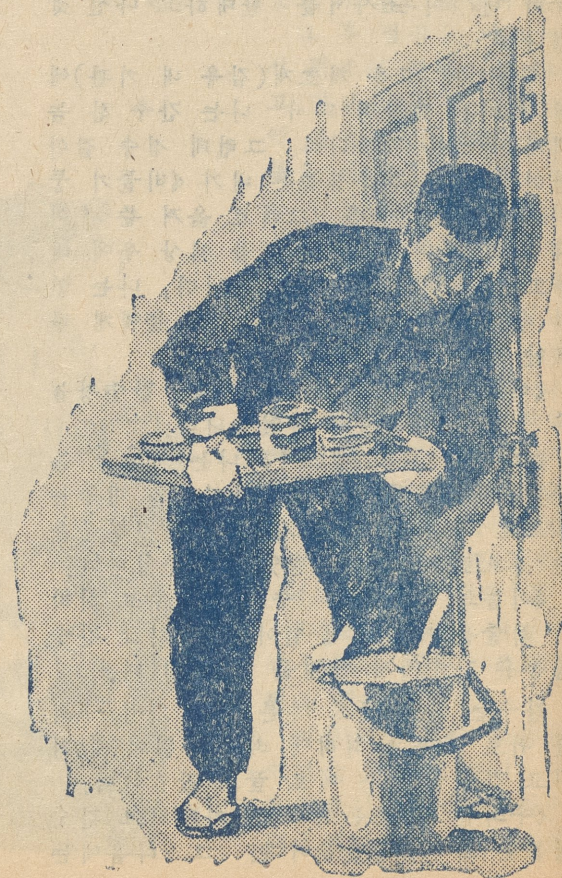
그 때 180 여 명의 동무들이 공판을 받았는데 검사 구형으로 열 명이 사형으로 되고 여섯 명이 무기 징역으로 되고 그 외에는 15년 징역부터 3년 징역까지 구형을 받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에 격분하였습니다.

이 때 맨 뒤에 앉은 리 동걸 동무가 노기 백배하여 일어나면서 웨쳤습니다.

《이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강도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형한다고 하여 우리 혁명이 성공 못할 줄 아는가! 나는 공산당원이다. 우리 나라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일본 제국주의 너희놈들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튼튼히 믿고 있다. 나를 죽일테면 죽여라! 나는 너희들의 멸망을 비웃어 가면서 눈을 감을 것이다. 조선 혁명 만세!》

그 다음 권 영벽, 리 제순, 박 금철 동지들이 일제의 폭압을 반대하여 연설하였으며 그 외 다른 동무들도 일본 경찰의 간악한 행동들을 여지 없이 폭로 하였습니다.

내 차례가 돌아 왔습니다. 재판장놈이 내가 일본 말을 안다고 일본 말로 진술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체 동무들에게 선전이 될 것을 생각하고 조선 말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놈들 앞에 부득이 죄인으로 처단 받게 되는 것이 원통하다.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자주 독립 국가라면 우리는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열렬히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짐승 같은 너희놈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 인민들은 지금 갖은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사람 이하의 학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일본 제국주의 너희놈들이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위하여 싸운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이것은 정의이며 진리이다. 우리는 이런 진리의 편에 서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우리를 하루 속히 무죄 석방하라! 그리고 혜산 경찰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초보적 법률까지도 유린하면서 마음 대로 우리 동무들을 20 여 명이나 고문하여 죽였다. 이 죄'과를 음페하기 위하여 자기 앞잡이 의사들을 시켜 심장 마비로 죽었다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 선량한 조선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무고한 조선 사람 20 여 명이나 학살하고도 그 중 10 여 명은 시체조차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암장해 치웠다. 이것이 곧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당황한 재판장놈은 나의 언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일본 제국주의를 더 폭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5월 27일에 드디여 나의 벌측은 해제되여 수쇠도 풀고 문서 금지도 해제되였습니다.

8월 28일은 함흥 지방 법원 공판 날이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180명의 우리 동무들이 모두 함께 출정하였다면 이 날은 180명을 세 패로 나누어 출정시켜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28일 날 아침 9시 쯤 되여서 간수놈이 나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지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지?》 하고 위협하더군요. 나는 우정 처음 듣는다고 했지요.

《오늘 만일 사형으로 결정되였다 하여도 앞으로 복심 법원과 고등 법원으로 상소할 수도 있으니까 겁낼 필요는 없다. 그리 알아라.》 하고 간수놈은 얇찌르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그 놈은 아마도 나를 사형으로 판결할 것은 정해 놓은 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간수놈은 내가 사형이라는 말만 듣게 되면 이왕에 바늘로 선전문을 쓰던 때처럼 저희들에게 마구 덤벼들가바 겁이 나서 미리 질러 놓는 것 같이 나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간수놈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형 판결이 내리리라는 것을 각오했고 처음에 조국 해방을 위한 운동에 나섰을 때에 벌써 조국 앞에 영예로운 회생을 각오한 바 있었기 때문에 간수놈의 말에 나는 동요됨이 없이 굳은 신념을 가졌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드디여 법정에 나가서 한 30명 가량 되는 우리 동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예상한 바 대로 우리를 보천보 사건에 참가했다고 생억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영벽, 리 제순, 리 동걸, 지 태환, 서 인홍과 나에게 사형 언도가 내리고 박 금철 동네 동지에게는 검사 구형 사형이던 것이 무기 징역으로 판결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안은 우리 동무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 앞에는 일시적 격분보다 앞으로 투쟁을 더 잘 조직하여 어떻게 서울 복심 법원에 가서 승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강원도 원산 제 5 중학교 대 제 17분단에서 ◇

본사 기자 리 종 근

그림 오 영 복

《친한 동무》

17 분단을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의례히 이 분단 동무들이 내 놓는 두툼한 책부터 보게 됩니다.

붉은 글씨로 《친한 동무》라고 쓴 이 책은 이름 그대로 이 분단 동무들의 친한 동무이며 이 분단 동무들이 귀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책입니다.

이 책을 번져 가노라면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소년단원다운 이 분단 동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단에서는 이 책에다 《정옥이의 귀중한 수첩》, 《학교에 오신 내무원 아저씨의 이야기》, 《천 3 메터》, 《량권 111매》, 《길'가에서 생긴 일》, 《점심 밥 한 그릇》, 《어느 날 있은 사'건》, 《순자의 자기 비판》 등등 재미 있는 제목을 달아 가며 분단 동무들의 착한 행동들을 적어 넣고 있습니다.

《천 3 메터》라는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씌여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던 길에 장 덕순 동무는 길'가에서 신문지에 싼 조그마한 보꾸러미를 한 개 얻었습니다. 무얼가? 하고 헤쳐 봤더니 아름다운 천 3 메터가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떨구었을가?)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가?)이런 생각을 하니 어서 임자를 찾아 주고 싶었습니다.

덕순이는 장마당이랑 거리랑 돌아 다니며 천의 임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소년단원이다.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꼭 찾아 내야겠다.》 그는 이렇게 마음 먹고 동 사무소마다 찾아 다니며 게시판에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덕순이 한테 원산 제 3 중학교 학생이 찾아 왔습니다. 그가 바로 천의 임자였습니다.

덕순이는 정직한 소년단원입니다. 그의 이런 아름다운 품성을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량권 111 매》, 《송도원에서 얻은 보자기》, 《학교에 오신 내무원 아저씨의 이야기》들도 덕순이와 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정직한 소년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옥이의 귀중한 수첩》이라는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단 위원장 김 정옥 동무에게는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가 철거할 때 기념으로 주고 간 훌륭한 수첩이 있었답니다. 그는 이 수첩을 귀중히 겼었습니다. 신문지에 싸고 또 손'수건으로 싸서 보물같이 간직하여 왔습니다. 누가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 주기조차 아까와 했고, 오빠가 달래도 주지 않던 수첩입니다.

분단에서 오래'동안 함께 배워 온 애국렬사의 딸인 박 인숙 동무가 초등 학원에 전학 가는 날이였습니다.

정옥이는 그 귀중히 여기던 수첩을 이날 인숙이와 헤여지면서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동무를 사랑하며 동무를 귀중히 여기는 정옥이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페지 마다에 씌여진 이런 착한 일들 중에는 《어느 날 있은 사'건》이라는 재미 있는 제목을 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단 1반 동무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24일 아침이였습니다. 상학종이 울리기 몇 분 전까지 1반 동무들이 몽땅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까지 늘 출석률이 100%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칭찬 받던 분단이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걱정에 싸여 창밖만 내다 보며 1반 동무들이 나타나기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교문 쪽으로 한 어머니가 바쁜 걸음으로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는 창애 어머니였습니다. 창애 어머니는 분단 동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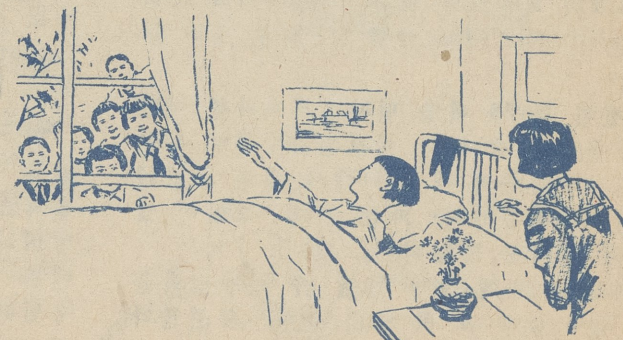
창애는 아침 밥도 못 먹고 배 아프다고 딩굴었답니다. 마침 학교에 같이 가자고 찾아 들었던 반 동무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에서 니야까를 얻어다 창애를 병원에 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늦어질 것만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분단에 알려야 했는데 서로 창애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창애의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그럼 내가 분단에 가서 알리마》 하고 뛰여 왔다고 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창애를 입원시킨 후 반 동무들은 그의 집에서 학습장을 가져다 서로 나누어 그 동안 배우지 못한 학과를 필기해 주었고 창애를 대신해서 어머니 일도 도와 주었습니다.

병원에 첫 방문을 가는 날 반 동무들은 손에 손마다 잡지, 신문, 그림 책, 꽃병들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 의사 선생님은 한 사람만 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반 동무들은 서로 제가 들어 가겠다고

앞에 나섰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표를 뽑게 되였습니다. 대표로 리 복순 동무가 들어 가게 되였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복순이에게 자기들이 가져 온 선물을 쥐여 주며 《나도 왔다고 해라》, 《모두 왔는데 한 사람만 들어 가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로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꼭 해라》 반 동무들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창애의 방에 들어 선 복순이는 핼쑥해진 창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눈물이 글썽해서 말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때 창밖에서 《창애야!》 하고 합창이나 하듯 반 동무들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는 반 동무들의 웃는 얼굴로 꽉 들어 찼습니다.

반 동무들은 의사 선생 몰래 뒤뜰을 돌아 창애의 방 창밖에 왔던 것입니다.

그 후 반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 없이 병원에 찾아 갔습니다.

《얘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 줄가?》,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해 주자!》,

《그앤 뭘 좋아 하든가?》,

창애를 더 즐겁게 해 주려고, 방문 가는 날마다 반 동무들은 이렇게 좋은 《선물》을 고루기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은 반 동무들에게 마치 큰 명절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밥을 정성껏 지어 놓고 창애를 맞이했고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동무를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며 동무가 곤난에 부닥쳤을 때 도와 줄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품성은 오늘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소년단원들이 갖추어야 할 귀중한 보배입니다.

《하루 한 가지•이상 좋은 일하기》

《친한 동무》 책을 번져 가노라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단 동무들이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소년단원답게 행동하자》 라는 분단 모임이 있은 후 시작한 일입니다.

교실 뒤'벽에 분단 인원 수 만큼 못을 쭉 박아 놓고 그 못 우에 분단 동무들의 이름을 써 붙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자기 한 일을 써서 자기 이름 아래 꽂아 놓기로 한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동무들은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찾아 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종이 쪽지가 못마다에 꽂혀집니다.

길'가에서 우는 애를 업어다 주었다는 이야기, 할머니의 길을 안내해 준 이야기, 길'가에서 얻은 돈을 주인을 찾아 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꽂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면 반장들이 이것을 모아 분단에 가져 가고 분단에서는 그것을 보고 《친한 동무》 책에 기록하여 두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들의 자랑책인 《친한 동무》는 좋은 이야기로 불어만 갑니다.

《다채로운 모임으로》

그러나 분단에는 가끔 가다도 그릇된 일을 하는 동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 주기 위해 모임도 가지고 벽보에 비판도 하고 열성자들이 타일러도 주며 그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도와 줍니다.

그 중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 봅시다.

한 영자 동무는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길을 물어도《난 몰라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애를 업고 내려 놓았던 짐을 이워 달래면 《학교가 늦었는데

뭐》 하며 도와 주지 않고 소년단원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한 영자 동무를 고쳐 주기 위해서 짧은 극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영자 동무의 행동을 내용으로 한 《그가 참다운 소년단원이라면》 하는 제목의 극입니다.

열성자들은 이 극의 할머니 역을 한 영자에게 시켰습니다. 영자가 할머니 역을 맡아 하면서 자기 잘못을 행동으로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단 모임 날, 모임에 앞서 이 짧은 극부터 공연했습니다. 극이 끝난 후 모임이 시작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이 짧은 극을 중심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자는 자기가 할머니의 역을 맡아 하면서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는 소년단원이 괘'심했다는 이야기와 자기의 짐을 받아 쥐고 길 안내까지 친절히 해 준 소년단원이 고마웠다고 하면서 지난 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분단 모임을 흥미 있게 가지며 그릇된 동무들을 고쳐 주는 것입니다.

《분단의 자랑》

《친한 동무》 책에는 《분단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분단 동무들이 화목하게 지내며 모든 일에서 분단의 영예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이룩해 놓은 성과에 대해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살구씨, 복숭아씨 네 말을 모아 협동조합에 보낸 일, 못 52 키로그람을 모아 건설 트레스트에 보낸 일, 호박산에 있는 2,000 북의 호박이 꽃피고 있는 이야기, 3,200 포기의 해바라기가 쟁반 같이 둥굴어 무겁게 고개 숙이고 있는 이야기, 이런 가지 가지의 자랑을 써 넣었습니다.

그들의 자랑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봄 엄 필자 동무는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널려 있는 소똥, 말똥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으면 많은 비료가 되겠구나, 그러면 거리와 마을도 깨끗해지겠지, 그렇다면 두 가지 리익을 함께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엄 필자는 이 생각을 분단 동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모두 칭찬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비료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체 학교 대분단들에서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전체 학교 대'적으로 860 가마니라는 많은 비료를 얻었던 것입니다.

17 분단 동무들은 다른 분단의 열 배 이상이나 모았습니다.

이것을 총화하는 모임은《두 가지 리익》,《적촌 제1 농업 협동 조합에서 받은 감사장》, 《티끌 모아 태산》 등 제목으로 진행하여 좋은 일을 한 자기들의 기쁨을 자랑했습니다.

* *

이 《친한 동무》 책의 매 장마다에 씌여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날마다 늘어가는 이들의 자랑, 이 자랑은 매일 《친한 동무》 책에 씌여지고 있습니다.

《친한 동무》 책은 17 분단 동무들의 착한 일을 가득 담고 천 매 만 매로 불어 갈 것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소식

소년단원 동무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해주—하성간 철도 부설 공사장입니다. 나는 그간 공화국의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 다니면서 가는 곳 마다에서 눈 부신 건설 모습을 보고 련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 해주—하성간 철도 부설 공사장에 날아 온 나는 감탄 보다는 놀랐어요.

나는 이틀날부터 건설장 이 곳 저 곳을 돌아 다니며 보았지요.

청년 건설자 형님들은 산을 허물고 벼랑을 까부시며 물'속에 들어가 다리를 놓는 일을 시작했는데 글쎄 어찌도 일이 눈부시게 진행되는지 400—500%의 능률을 내는거에요.

수상님이 현장에 오셨다 격려하시고 가신 후 형님들은 더 단축하여 7월 말까지 완공할 것을 결의하고 철리마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함흥 철도 관리국 산하에서 온 45명의 형님들은 신원과 염탄 사이에 놓이는 《세탄교》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103일 간에 끝낼 일이였답니다. 그런데 글쎄 형님들은 여러 가지 창의 고안을 해서 조립식으로 밤낮을 일하더니 불과 4~5일 만에 제꺽 끝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놀랄 밖에요…

나는 일터로 가시는 분들에게 이 철도 공사를 왜 이리 바삐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 동무, 우리 서해안 지대를 한 번 돌아 보십시요. 공화국 다른 지대와 마찬가지로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 쎄멘트 공장만 하더라도 금년 8월부터 년산 60만 톤을 생산하게 되였고 곡창 지대인 이 곳 농촌에서는 왜놈 때보다 두 곱의 알곡을 수확하게 되였답니다. 또 날마다 더 많이 잡는 서해 바다의 저 고기배들을 보십시요. 그러니 이 곳 인민들이 흔히 《딸라당차》 라고 부르는 왜놈들이 부설한 작은 협궤로서야 어떻게 이것들을 다 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일제 때라면 10년이 걸리는 이 곳 철도 공사가 1년 동안에 아니 약 2개월 동안에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남의 힘 열 곱을 쓰는 사람을 장수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보면 평양 철도 관리국 산하에서 온 1중대 60명의 형님들은 모두 장수가 분명해요. 1일에 한 사람이 흙을 파 내는 일에서 1.5m³의 흙을 파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은 한 사람이 평균 16m³를 파냈거든요. 특히 김 석규 형님은 7분간에 100삽 뜨기 운동을 하여 25m³의 흙을 파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답니다.

은혜로운 조국의 손'길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탄생한 열 돐 맞이 명절 날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공화국 소년단원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밝고 넓은 희망의 길만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조국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조국을 사회주의 락원으로 아름답게 부강하게 가꾸며 이끌어 주는 조선 로동당의 은혜입니다.

공화국 북반부 어느 땅을 밟아도 소년들의 기쁨과 행복이 꽃처럼 주렁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일어서는 도시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협동화된 마을들도 모두가 마치 우리 소년들을 위하여 그렇게 훌륭하게 힘 있게 전진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푸르며 너그러우며 아름다운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따뜻하고 자애로운 품을 바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남조선 동무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조선의 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공원이나 강반을 거닐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남조선 어린 동무들을 눈 앞에 그려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린 두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넌 왜 우니? 응》

《 ...... 》

《어디 아프냐?》

《아버지, 남조선 소년들이 불쌍해요… 이걸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 ...... 》

이런 때엔 아버지의 두 눈도 붉어지군 합니다.

우리 조국 남 쪽 땅에서는 수많은 아동들이 학교 마당 구경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고아들이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잘 집도 없이 거리와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 때문입니까? 이는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매국 도당들 때문입니다.

어머니 조국은 남반부 인민들과 학생 소년들에게 또 다시 광명의 빛을 안겨 주었습니다.

8월 2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전원 회의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실업자들과 류랑 고아들 그리고 곤난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구원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내각 결정 96호를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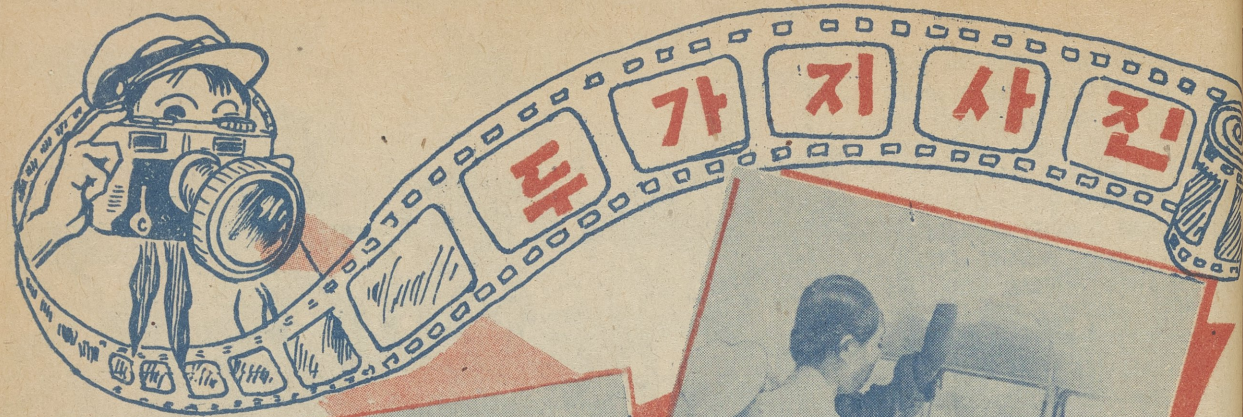
이 결정에는 남반부 실업자들과 류랑 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미 15만석, 직물 500만m, 수산물 1만톤, 신발 400만 켤레를 무상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반부 거리에서 헤매는 고아들을 우리의 행복한 품속에 받아 들여 기르겠다는 것과 3,000명의 대학생들에게 매달 1,000원의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동포애의 뜨거운 손'길은 반드시 그들에게 가 닿을 것이며 또 가 닿아야 합니다.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당이 아무리 발악을 써도 태양의 빛발을 가를 수 없드시 조국과 인민을 결코 갈라 낼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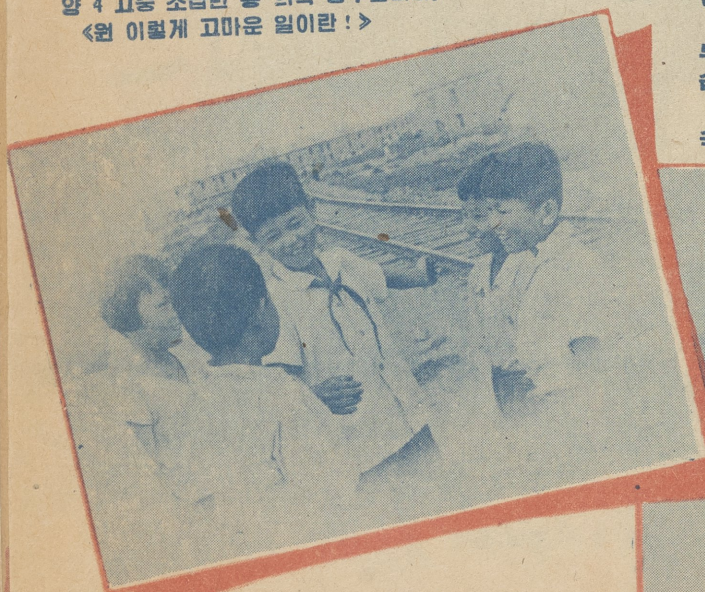
소년단
1958.9 부록
소년호
인천호
어느 날 내가 하성교 공사장에 갔을 때는 양수기가 고장이 난 때였습니다. 때문에 다리를 놓을 기초를 판 구덩이 속에는 물이 가득 차서 흙이 무너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깊은 물'속에 들어가 속히 양수기 빠이프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연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뛰여들면 생명이 위험했어요. 모두 손에 땀을 쥐고 웅성대는 순간 맹 동만 형님이 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다 울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김 구철, 홍 명구 형님들이 또 뛰여 들어 빠이프 속에 메여졌던 가마니를 빼냈습니다. 그래 양수기는 다시 콸콸 소리를 내며 순조롭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여 기차는 요란한 첫 기적을 울렸습니다. 해주에서 쏟아지는 쎄멘트와 펄펄 뛰는 서해 물'고기를 실은 기차는 건설자 형님들의 당과 정부 앞에 맹세를 실천한 자랑과 인민들의 기쁨을 같이 싣고 우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가 있으며 공화국 정부가 있는 공화국의 심장 민주 수도 평양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였습니다.
기적 소리를 들은 황남 신원군 신창리에 사는 조 윤화 로인은 동리 사람들과 같이 달려 나와 기차를 향해 손을 저으며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 것이였지요.
《아니 천리마로 달린다드니 그 말이 정말이였구나, 왜놈이 10 년에 한 일을 불과 두 달에 하다니……》 왜놈 때 이 곳에 철게를 놓을 때 일한 이 로인은 련신 감탄하시였습니다

☆ 빠스에서 ☆

촌에서 오신 할머니는 빠스에서 내리자 눈부시게 건설된 평양의 거리를 보시고 놀라시였습니다.

그 전에 왔을 때와는 퍽 달라져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렵니까. 제가 가리켜 드리지요.》

할머니 앞에 나선 것은 소년단 넥타이를 단정히 맨 평양 4 고중 초급반 홍 의옥 동무입니다.

《원 이렇게 고마운 일이란!》

《차칸에서나 빠스에서 웃어른들께 자리를 내 드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 동무는 어른들이 곁에 와 서 고 있어도 본체 만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무는 선생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은 모양입니다.

☆ 차'길에서 ☆

《우리가 차'길 옆에서 논다거나 차'길로 다닌다면 기차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철도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많은 방해를 주게 됩니다.》

평양 24 중 학교 인민반 최 종섭 동무는 자기 반 동무들에게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사대 부속 고중 초급반 김 순옥, 박 원숙, 방 관옥 동무들을 좀 보세요.

우리는 사회주의 새 사회의 소년단원답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그러한 동무들이 보이군요. 이는 참으로 섭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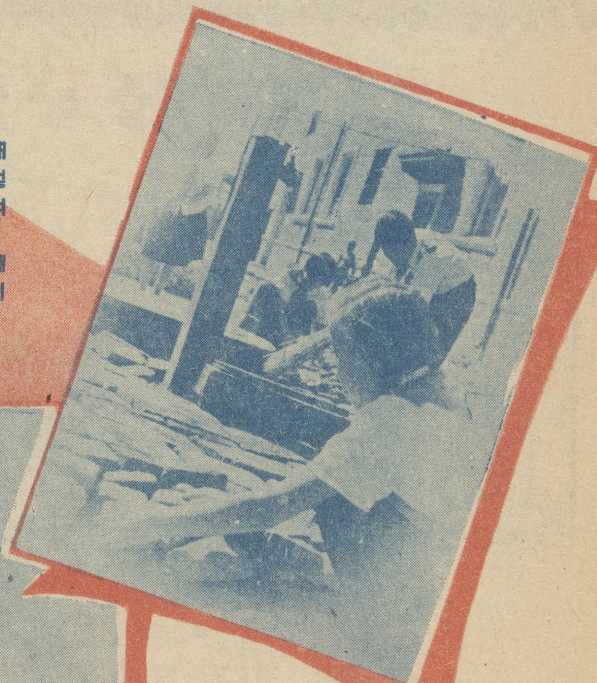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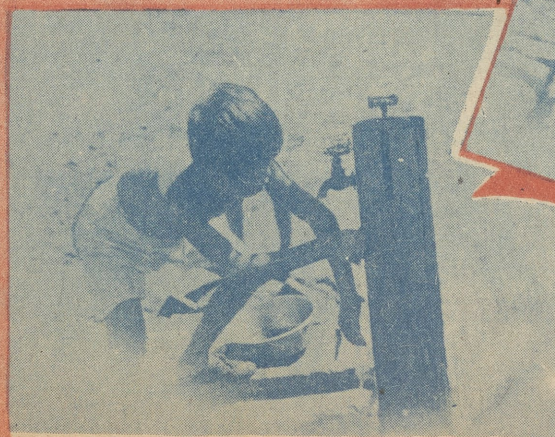
우리는 한 일을 하는 동무를 양해 주며 그릇된 일 하는 동무들은 고쳐야 합니다.

☆ 길'가에서 ☆

우리가 만일 길을 걸을 때 오른 쪽으로도 걷고 왼 쪽으로도 걷는다면 서로 부디치고 급한 일에도 빨리 갈 수 없고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질서에는 오른 쪽으로 다녀야 한다고 약속되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십시요. 평양 6 고중 인민반 김 정관 동무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우측으로 단정히 걷고있는데 평양 2 중 초급반 1학년 리 경덕 동무는 왼 쪽으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 수도'가에서 ☆

이것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평양 사대 부속 고중 인민반 라 미옥 동무는 늘 이렇게 주택 거리에 있는 수도'가를 청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 받고 있습니다. 이 쪽 사진을 보십시요. 이 동무는 항상 깨끗해야 할 수도'가에서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호의 계속)

문. 일사병과 열사병은 어떤 병입니까?

답. 일사병은 무더운 여름철에 태양 광선을 오래'동안 쬐일 때 일어나는 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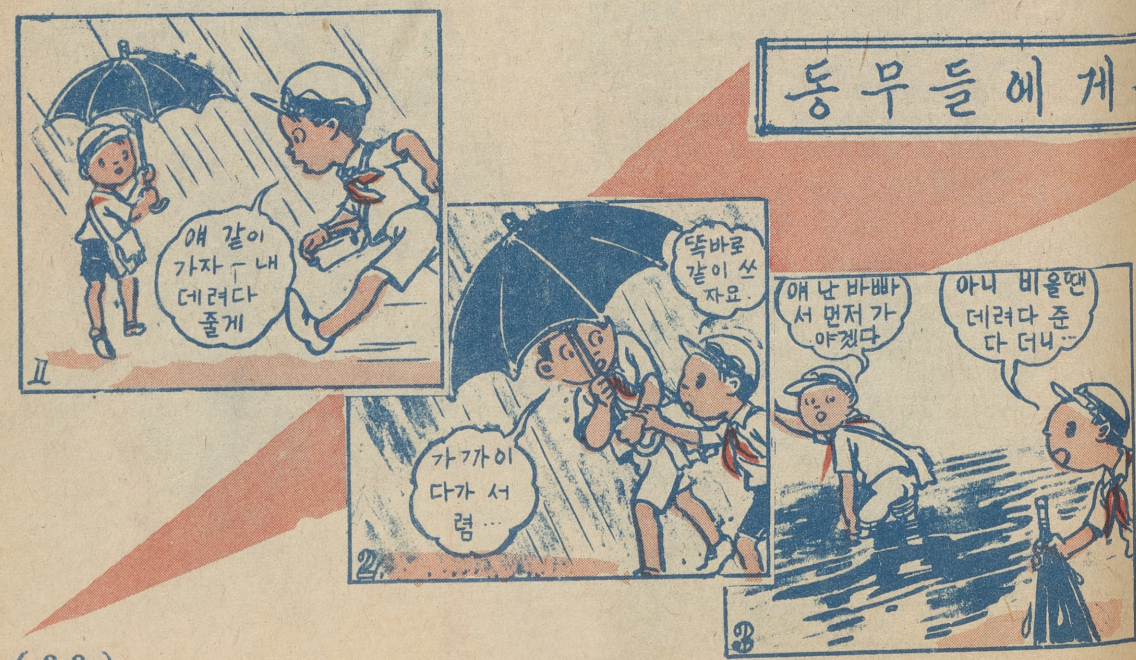
이 병은 몹시 살찐 사람, 굶주린 사람, 영양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잘 걸리며 학생들도 여름철 태양이 몹시 쬐이는 날 운동장에 오래 서 있거나 강행군을 할 때에 흔히 걸린다.

일사병의 증세는 처음에 얼굴이 붉어지며 심한 두통이 일어난다. 다음에는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증이 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열사병은 무더운 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답답한 장소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과한 로동을 오래 계속할 때 몸의 열은 많아지고 밖에 발산하지 못하게 됨으로 일어나는 병이다.

이 병의 증세는 온 몸의 피부가 시뻘겋게 달아 오르고 다음엔 붉어졌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구역질이나 하품이 나고 어지러움증과 함께 걸음이 비틀거리게 된다.

문. 이런 병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합니까?

답. 이런 환자는 즉시 서늘한 그늘 아래로 옮겨다 눕히거나 편하게 걸쳐 앉힌 다음 의복을 벗기고 숨 쉬기 편한게 하여 주며 머리와 심장에 랭수 찜질을 하여 주는 동시에 찬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병세가 심하여 정신을 잃게 되면 온 몸에 랭수를 끼얹고 몸을 주물러 주면서 심장의 활동이 좋아지게 할 것이며 숨까지 못 쉬게 될 때에는 인공 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곧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문. 이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 해'별이 몹시 쬐이는 여름날 과격한 운동이나 로동, 지나친 행군을 하게 될 때면 반드시 모자나 수건을 머리에 쓸 것이며 적당한 시간에 그늘지고 신선한 곳에서 휴식을 하며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

문. 식중독이란 어떤 병입니까?

답. 여름철 변질한 고등어나 부패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온 몸이 붉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두두러기 같은 것이 돋으며 구토 설사하는 병이 바로 식중독이다.

이 병에는 세균에 의하여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본래 독이 있는 물질을 가진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비세균성 중독이 있다.

즉 부패 변질한 육류나 그 내장, 또는 변질한 고등어 등 어류를 먹었을 때 오는 중독은 세균성 중독이고 독이 있는 버섯이든가 복어의 내장들을 먹었을 때 오는 중독은 비세균성 중독인 것이다.

문. 식중독에 걸렸을 때 구급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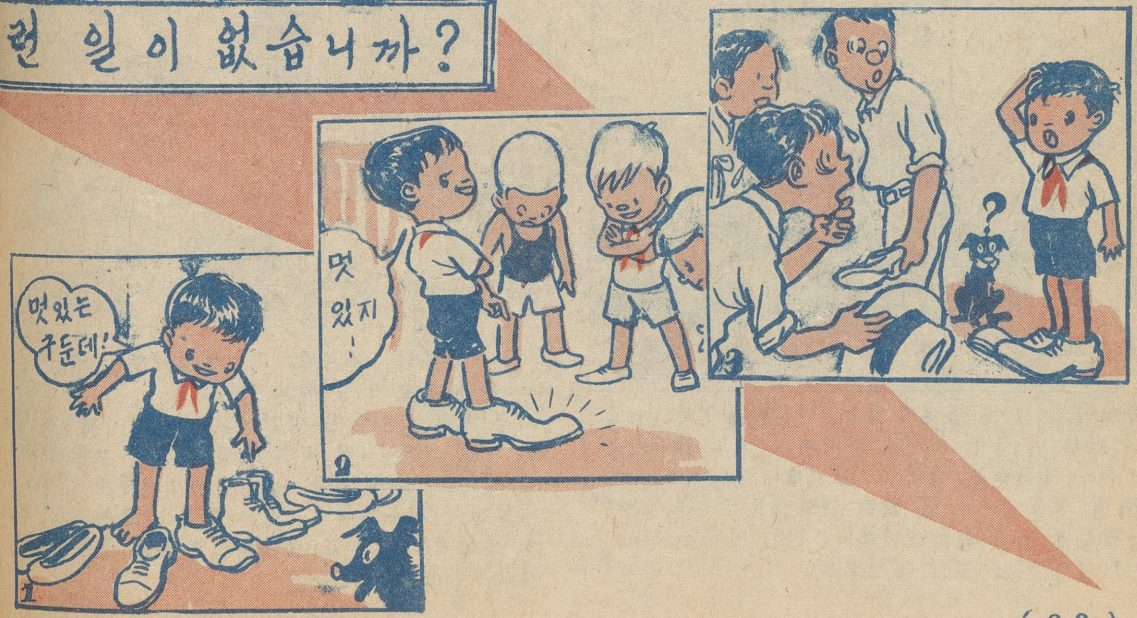
답.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먹은 것을 완전히 그리고 속히 토하게 해야 한다.

먹은 것을 토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마시면 된다. 그것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완전히 토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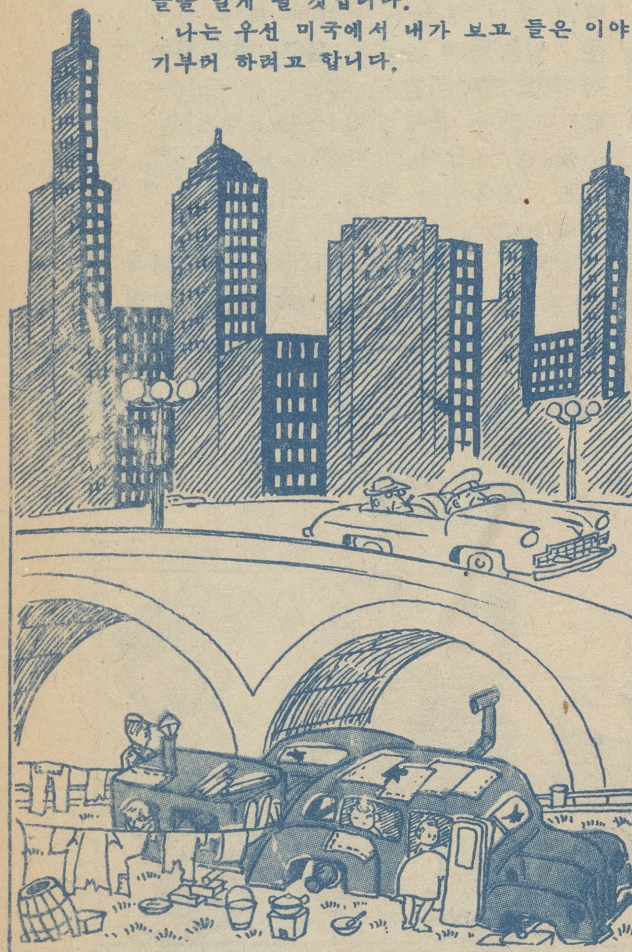
문.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 그것은 무엇보다 부패 변질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잘 익지 않은 음식이나 특히 소, 돼지의 내장을 회로 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 산채나 버섯 등을 먹을 때는 반드시 유독 식물을 골라내고 알지 못할 식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로케트려행 (1)

나는 지금 로케트를 타고 온 세상를 일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동무들은 가지가지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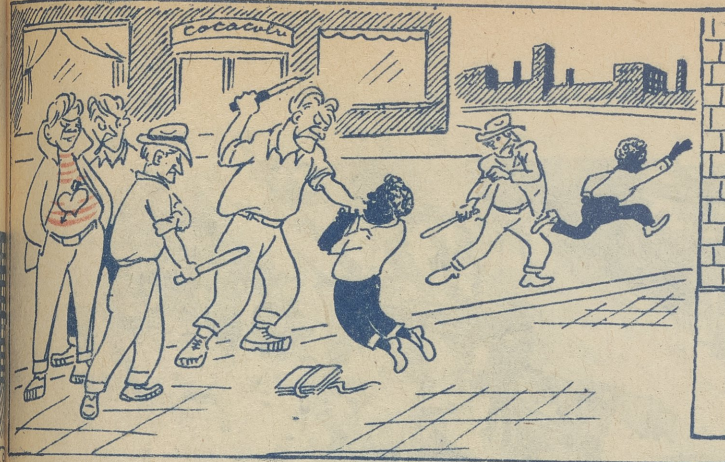
나는 우선 미국에서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30 마일 떨어져 있는 미들타운에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미 공군 기지가 설치되여 있고 거리에는 높다란 고층 건물들도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한 쪽 모퉁이에는 집 없는 근로자들이 한데 모여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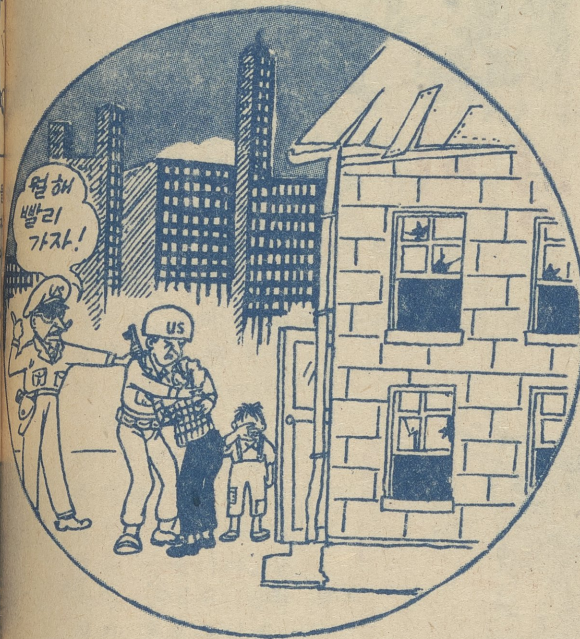
이것이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애요.

어느 날 뉴욕 시 상공에 이른 나는 숱한 아이들이 깡통을 차고 헤매여 다니는 것을 보았지요. 부자 나라라고 뽐내는 미국에 그렇게도 많은 거지 아이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쎄 이 거리에는 32만 9천 명이나 되는 로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헤매고 있다는거애요. 그러니 거지 아이들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여기는 아칸소 스 주 리틀로크 중 학교이지요.

이 백인 아이들은 흑인 소년 6명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이리 떼처럼 달려 들어 그들을 마구 치고 때리고 반 죽음을 만든 다음 이렇게 2층으로부터 내동댕이 치는거애요. 알고 보니 리유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지요. 다만 흑인들과는 함께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거애요.

미국 남부 지방에 있는 켄타기 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때마침 거기에서는 수 10명의 백인 불량배들이 흑인 소년 4~5명을 둘러 싸고 칼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아메리카 아동》 들을 위하여 발간되는 《인간 사냥》 이란 책들을 읽고 거기서 받은 충동으로 실지 사람 사냥을 해보는 거애요.

아들—아버지 어디로 가요?

아버지—레바논으로 간단다.

아들—거겐 뭘하러 가요?

아버지—자본가놈들이 불지른 전쟁에 끌려 간단다.

그들은 지금 미국이 레바논 침략을 위해 내모는 싸움 판으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판이였어요. 어린 아이들은 떠나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불며 야단이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나는 2,000여명 로동자들이 거센 파도와도 같이 일어나 자본가놈들의 착취를 반대하며 임금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용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곳 포모나 시에 있는 미국 유도탄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였습니다.

동무들 이 어둡고 무시무시한 거리를 좀 보세요. 나는 미국을 떠나면서 이 거리도 멀지 않아 어둠의 구름을 헤치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새 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림, 원 광수

항일애국투사 허상만

글 오 상 근　　　그림 박 상 락

1937년 10월 어느 날 일본 경찰은 허 상만 소년의 집에 구두'발 소리도 요란히 달려 들었습니다. 일본 경찬놈들이 상만 네 집에 달려 들었을 때 상만은 소 외양'간에서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가 허 상만인가?》

인차 모든 것을 깨달은 상만은 풀섭을 들었던 손을 털면서 시침을 떼고 되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나아리!》

《나는 네가 허 상만인가고 물었어!》

수색대 대장으로 보이는 뚱뚱보 사나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이 따라 왔던 동리 구장은 덤덤히 서 있는 상만을 보자 여우처럼 빠르르 얼굴을 내밀고 말 참견을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경부님 그 놈이 틀림 없는 허 의생의 둘째 아들 허 상만이 올시다. 공산주의자들과 밀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였지요.》

그러자 경부놈은 눈을 흽뜨고 상만의 몸을 아래 우로 유심히 훑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화전민의 아들인 그는 착하고 용감한 소년이였습니다.

상만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이전에 갑산 공작 위원회였음)의 지도 밑에 보람찬 일'군으로 자랐습니나.

남달리 령리한 그는 소년 레포(련락원)를 담당하여 국내는 물론 멀리 국외에까지 혁명가들을 찾아 다니면서 련락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삐라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조직은 상만에게 있어 커다란 기쁨이며 희망이였으며 마치 앞길을 밝혀 주는 지섈 줄 모를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국과 혁명에 충직한 허 상만 소년을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그래 이번에 부락 애국자들을 체포하면서 일본 경찰은 허 상만에게도 총뿌리를 돌리게 되였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물이 든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뚱뚱보 놈은 상만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상만은 귀'속이 윙윙하고 볼에는 손'가락 자리가 줄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경부를 데리고 따라 왔던 졸개들이 상만에게 달려 들어 그의 팔을 비틀어 꽁꽁 묶었습니다. 상만의 가슴 속에는 분노의 불이 일고 있었으나 겉으로 일부러 엉석을 부려 소리쳐 울면서 옆에 서 있는 뚱뚱보의 손'등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귀 같은 놈들은 상만의 볼이며 머리를 마구 쥐여 박고 되는 대로 발길을 했습니다. 상만의 입에서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이 어쨌단 말이냐 안된다, 못 데려 간다!》

어머니의 서글픈 울음 소리를 들으며 상만은 놈들에게 끌리여 갔습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을 못데려 간다》

어머니의 서글픈 울음 소리를 들으며 끌리워 갔다◇

* *

가을 비 그친 들'가에 해'빛은 눈부시게 비칩니다. 먼 산에는 벌겋게 단풍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결에 숲들과 나무 잎들이 하느작거립니다. 락락 장송이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우뚝 솟았습니다.

상만은 그 밑을 지나 언제 돌아 올지 모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만은 언젠가 이 길을 지나 백암 마 동회 아저씨와 장백현 리 제순 아저씨에게 련락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는 혁명 과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여 또한 어린 몸으로 커다란 혁명 발동기의 작은 라사못 역할을 수행하는 영광으로 하여 가슴이 설레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울하게도 원쑤에게 체포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디디고 있지 않는가! 상만은 자기의 처지가 분하기만 하였습니다. 상만은 끌려 가면서 지난 날 압록강을 건너 장백현으로 가던 일이 생생히 되살아 났습니다.

…칼바람은 눈보라를 일쿠고 있었습니다. 상만은 얼마 전 산림 보호국에서 몰래 훔쳐 낸 동사판을 지고 장백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직에서는 동사판을 훔쳐 낸 상만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곧 20 도구에 가져 갈 것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상만은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 갔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올라온 데다 뽀얀 눈가루는 연신 상만의 눈 앞을 가리였습니다.

눈꽃 핀 소나무 구루를 지나 산기슭을 감돌아 섰을 때

《누구야 섯!》

별안간 귀를 째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만은 벌컥 눈무지 속에 몸을 던지고 기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몇 방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시간은 눈 속에서 기였을 것입니다. 상만은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는 곧 자기가 길을 헛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직에서 준 임무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 왔을 때 조직 책임자는 시퍼렇게 언

상만의 손'등을 문지르면서 말했습니다.

《혁명이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때로는 죽음의 고개를 즐거이 넘어서기도 한다. 고개에 올라서면 멀리 앞이 바라 보이기 때문에… 조국의 앞날이 바라 보이기 때문에…》

상만은 비록 지금 원쑤에게 체포되여 끌려 가고 있었지만 가슴을 내밀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작인의 피를 빨아 먹는 지주가 없는 세상이 꼭 오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걸어 갔습니다.

◇《이 놈 너는 오늘 물 귀신이 된다》

상만은 압록강 고문도 이겨냈다 ◇

그의 머리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단막극 《저 놈을 타도하라!》를 준비해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주 역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화전민 소년들의 골수에 사무친 원한은 지주에 대한 증오이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미움받는 역을 상만이가 맡게 되였습니다.

순사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유측에서 연극이 시작되였습니다. 연극 줄거리가 똑똑히 나타나자 관중들은 주먹을 부르쥐였습니다.

…악착한 지주놈은 소작인의 피땀을 깡그리 빨아 먹습니다. 소작인은 병들어 눕습니다. 약 한 첩 지을 길 없어 눈물 먹음던 어린 아들이 지주를 찾아 갑니다. 지주놈은 몇 장의 지폐를 던져 주며

《섯달 그믐까지 갚지 않으면 알지, 응 알았니?》

소년은 그 돈으로 약을 지어다 아버지를 대접했으나 병은 낫지 않고 빚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지경으로 되였습니다. 지주놈은 빚 값으로 소년을 끌어다가 죽도록 일 시켜 먹고는 곡마단에 팔아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간신히 일어나 도끼를 들고 지주에게 달려듭니다.

연극을 구경하던 농민들은 흥분하여 웅성거립니다. 이 때 농민들 속에 끼워있던 조직 책임자가 불쑥 일어나 웨칩니다.

《저 지주 놈을 타도하라! 저 놈들이 우리 농민을 못살게 군다.》

했더니 관중들은 저마다 일어나 지주에게 주먹질 하였으며 어떤 성급한 사람은 연극이라는 것도 잊고 손에 들었던 호미를 상만에게 내 던졌습니다. 상만은 이렇게 하여 이마에 상처를 입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만은 이것이 다 혁명을 위한 일이라는 조직 책임자의 말을 듣고 무한히 기쁘기만 했습니다.

상만은 놈들에게 끌려 가던 도중 한 가지 끔직스런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부락에 공작 나왔던 빨찌산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여 그 놈들과 용감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빨찌산은 집안에 숨어서 달려드는 경찰에게 총을 놓습니다. 일본 순사 두 놈이 꺼꾸러집니다.

경찰놈들은 함부로 대들 수 없다고 생각되자 수수'대 바자와 초가 지붕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아 놓았습니다.

빨찌산 공작원은 화염이 충천하는 지붕밑 기둥에 기대여 마지막 힘을 모아 울부짖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공산주의 만세!》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짓만 골라가며 감행하는 일본 경찰놈들은 그가 불에 타 죽은 것을 보고야 돌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여 선 군중을 향해 위협하듯이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공산주위를 하면 저 모양이 된다.》

일순간에 있은 참상에 상만은 가슴이 메질듯 하였고 두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 빨찌산에 대한 생각은 상만의 머리에서 오래'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

감방에 갇히운 상만은 한 주일만에 정식으로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고문을 시작하면 놈들은 사흘, 나흘, 어떤 때는 일주일 씩 계속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상만이가 련락원으로 있었던 것만큼 그의 입을 벌리게 하면 국내 국외의 조직을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고 모진 고문을 하였습니다.

상만은 열 일곱 나이에 비해 키골이 장대하고 의지가 굳어서 원쑤들의 갖 가지 야수적 고문을 모두 이겨 냈습니다.

《화로'불 고문》, 《비행기 태우기》, 《물 고문》… 련거퍼 들이 대는 악착스런 고문에 그렇게 건강한 상만도 그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특히 《물 고문》 때에 고추'가루를 물에 타서 코에 부어 넣는 통에 상만은 몇 번씩 까무라쳤습니다. 감방에 돌아 와 며칠이 지난 후에도 코와 눈 귀에서는 멀건 물이 흘러 내리군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어디서 났어요?》

《너의 어머니가 들여 보낸 것이다 어서 갈아 입자》◇

《이리 나와! 귀신 같은 자식이 오래도 산다.》

또 하루는 간수놈이 간방에 쓰러져 있는 상만을 끌어 냈습니다.

《소년 죄수가 또 끌려 나간다.》

《저런, 어쩌나, 이번에는 꼭 죽을거야.》

같은 간방에 있는 동료들은 근심스러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 일인지 고문 실로 끌고 가지 않고 압록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날 따라 첫 눈이 내렸습니다. 무심한 눈송이는 상만의 어깨와 등과 얼굴에 훨훨 내려 앉았습니다.

《이 놈 너는 오늘 물 귀신이 된다. 오늘도 대지 않을 테냐? 그래 누구에게 련락 다녔니? 리 제순이지? 박 달이지? 그러고 박 시욱이지?》

놈들은 상만의 입을 통해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되면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데 증인으로 될 수 있음으로 어떻게 해서던지 상만의 입을 벌리게 할려고 모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 수고였습니다.

상만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강'가에 장승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멀지 않는 곳에 한 녀인이 머리를 풀고 손을 저으며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순사놈들이 그 녀인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저걸 보느냐? 저 것이 너의 어머니다. 대지를 않으면 너의 어머니도 죽일테다.》

상만은 눈을 감은 채 뒤 돌아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천하에 악독한 순사놈들은 눈을 감고 선 상만을 발'길로 차서 강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상만아! 상만아!》—

바람'결에 어머니의 자지러진 목소리를 들으며 상만은 압록강 물속에 깊이깊이 들어갔습니다.

× ×

상만은 그 무서운 압록강 고문에도 죽지 않고 살아 났습니다. 놈들은 상만을 물 속에 차 넣고는 거의 숨이 질 무렵에 바'줄을 잡아 당겨 끄집어 내고는 또 다시 물 속에 집어 넣으며 모진 애를 멕였습니다. 상만은 그 날 간방에 돌아 와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변이 어디 있담, 하늘이 무섭지》

같은 간방에 붙잡혀 온 동리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만을 일으켜 앉히고 차입으로 들어 온 솜옷을 그에게 입히려고 하였습니다. 상만의 코와 눈에서는 멀건 물이 또 흘러 내렸습니다. 상만은 코'물을 주먹으로 닦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어디서 났어요?》

《너의 어머니가 엊그제 들여 보낸 것이다. 어서 갈아 입자》

상만은 솜옷을 만지면서 따뜻한 은정이 몸에 잇닿는 듯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세요. 어머니는 먼 훗날에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것이예요. 어머니…》

보름'달이 감방 안을 비칩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달을 바라보니 집 생각이 더욱 났습니다. 상만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 달을 바라보던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상만에게 달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 있게 들려 주었댔습니다. 그 후 상만은 지붕우에 올라 장'대기로 달을 딸려고 애를 썼고 달 속의 계수 나무를 찍어다가 집을 지었으면 하고 공상도 하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달은 우리 마을을 비치겠지요. 일본 경찰놈들은 나를 감방에 가둘수는 있으나 저 달빛을 얽어 맬 수는 없을 것이애요.》

상만은 그 날 깜박 정신을 잃고 또 쓰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지막 고문이 진행되였습니다. 그것은 《살 뜯어 내기 고문》이였는데 이는 혜산 경찰서에서 적용하던 가장 참혹한 고문이였습니다. 놈들은 아무리 토설을 받을려고 발광해 보았으나 꼭 다문 상만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놈들은 상만의 옷을 벗기고 칼과 송곳으로 살을 뜯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담'벽에 가 붙고 피가 사방에 튀였습니다. 그것은 마치도 승냥이가 어진 양을 잡아 먹는 듯 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놈들이 쓰러진 상만의 몸에 담배'불을 대 보았을 때는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만의 전신이 곪기 시작했습니다.

◇ 허 상만의 어머니 ◇

놈들은 상만의 몸을 곪게 할 수 있었으나 상만의 정신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만은 마지막 숨이 질 때까지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혁명 위업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둘도 없는 자기의 생명을 혁명과 바꾸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항일 애국 투사 허 상만의 옥중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혹하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혁명 정신을 말해 주는 영원한 해'발이며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슬기로운 혁명 선배를 가지고 있음을 무한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소년소설

공화국기는 휘날린다

글 리 진 화

1

미군놈들과 《국방군》놈들이 거리로 기여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고개 넘어 있는 창길네 마을은 들볶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접전하는 전쟁 마당처럼 마을은 난데 없는 총 소리를 뒤덮였습니다. 고개를 넘어 온 미군놈들이 마을에 들어 오는 길로 곧 가축 사냥을 시작했던 것이였습니다.

개바주 곁이거나 도랑 옆이거나 가리 속이거나 울 안이거나 가리지 않고 놈들은 마구 불질을 퍼부었습니다. 꼬꼬댁 소리를 치거나 우꽥꽥!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닭과 돼지를 놈들은 자동차에다 던져 싣고 고개 넘어로 달렸습니다. 산'기슭 밤나무에 올라 앉아 놈들의 이런 짓을 낱낱이 보고 있던 창길이는 침을 꿀떡 삼키며 혼자 부르짖었습니다.

《도둑놈들—강도놈들의 새끼들—》

놈들은 농맹 위원장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농맹 위원장 아저씨의 어머니를 붙들어다 가두어 두고는 농맹 위원장 아저씨의 간 곳을 대라고 그냥그냥 때리다가 그래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를 그만 다 죽게 만들어 놓고는 그

때도 시원치 않아 아저씨네 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창길이는 우물 옆에 서서 불 타 오르는 삼간 기와집을 바라보면서 이를 보독보독 갈았습니다.

《살인귀— 아귀놈의 새끼들—》

짐승 같이 생긴 미군놈들, 눈'가에 피가 오른 《국방군》 놈들의 앞잡이인 소위 치안대라는 놈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새끼들이 미군놈의 편이드랬구나!》

치안대 대장이라는 것은 창길이도 잘 아는 놈이였습니다. 거리에 한약국이라는 명색을 내놓고 사실은 돈노이를 일삼던 《돼지》라는 늙정이의 아들놈이였습니다. 같은 또래의 건달 패들이 채찍 맞은 병아리처럼 대가리를 처들고 마을로 드나들었습니다.

놈들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집에서도 《태극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발은 없소, 공화국기 밖에 없소. 공화국기를 띄우리까?》

오히려 이런 대답이 마을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자 골을 올린 것은 《국방군》 놈들과 치안대를 앞 세운 미군놈들이였습니다.

놈들은 공화국기를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온 마을을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놈들은 공화국 기'발만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륙과 귀금속 보물들도 함께 략탈해 냈습니다. 피륙과 귀금속 보물들은 미군놈들과 《국방군》놈들이 집어 먹고 집집에서 들추어 낸 공화국기는 놈들이 불질렀습니다. 마을 앞 마당에 모닥 불을 질러 놓고 공화국기를 태우며 놈들은 밤 늦도록 능청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왁자지껄 떠들었습니다.

창길이는 담'벼락 뒤에 숨어 불'빛에 비치는 놈들의 아귀 같은 얼굴을 바라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 망난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한다고 공화국기가 없어질 줄 아느냐!》

2

창길이는 뒤울안에 선 살구나무 둥치를 쓰러 안고 두 발을 굴러 보았습니다. 굳은 땅을 디딜 때와는 달라 발 밑이 쿵쿵 울렸습니다.

창길이는 빙긋이 웃고 나서 발자국 난 곳을 흙을 모아 반반히 메웠습니다.

《어림두 없다. 못 찾아 낸다.》

살구나무 밑에는 창길이의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드나드는 미군놈들도 《국방군》놈들도 《치안대》놈들도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고히 간직한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기를 남몰래 고히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은 지었는데 기'발도 어울려야지.》

창길네가 기와집을 짓던 해 토지 개혁 기념일에 세우려고 창길이 아버지가 장'거리에 나아 가셔서 맞추어 온 공화국기였습니다. 천도 좋았을 뿐더러 학교에서 쓰는 것처럼 기폭이 넓었습니다.

이 공화국기를 창길이는 차곡 차곡 접어 보자기에 싼 뒤 딸기 상자에 넣어 묻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화국기를 그 개놈들이 압수해다가 태워 버리라고 내여 줄 창길이가 아니였습니다. 놈들이 집을 뒤지는 날 창길이는 서랍에 개여 넣었던 공화국기를 품에 넌짓이 찌르고 뒤울안으로 빠졌던 것이였습니다.

놈들은 공화국기를 내 놓으라고 을러대다가 궤에서 피륙이 나오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노략질을 마음 대로 해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차후라도 공화국기가 나오기만 하면 알지? 이거다.》

나가면서 《최 돼지》 아들놈은 손'가락으로 방아쇠 당기는 시늉을 하며 창길이의 아버지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직해 둘테야, 그랬다가 우리 인민 군대가 나오면 공화국기를 들고 마중 나갈테야.》

창길이는 또 한 번 빙긋이 웃고 나서 한 팔로 살구나무 둥치를 끼고 몇 바퀴 맴을 돌면서 김 장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애, 이 애!》

창길이는 맴 돌기를 멈추었습니다. 노래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데를 바라 보았습니다.

뗏갓 쪽에서 내려 온 형이 뒤울안으로 들어 섰습니다.

《노래를 불러선 안 돼! 요새 와선 놈들은 노래를 불렀다구 너 같은 애들두 막 족쳐가는 판이야.》

《나두 알아— 그래두 부르고 싶은 걸 뭐— 학교에 가구 싶은 걸—》

《조금만 참아—》

형은 창길의 등을 어루만져 주며 가만이 그러나 힘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가 멀잖아 나오지? 그러구 우리 기'발을 태우구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그 백정놈들을 몰아 내 주겠지?》

《암 그렇구 말구—》

《그 때는 그걸 꺼내서 휘두르며…》

창길이는 기'대를 휘두르는 시늉을 하다가 이상한 눈치로 자기를 보는 형을 바라 보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뭘? 뭘 꺼내 들구?》

《아니야— 아무 것도 아니야—》

창길이는 손을 내 저으며 살구나무 밑으로 가서 두 팔로 살구나무를 껴 안고는 벙긋거렸습니다. 창길이는 살구나무 밑에 있는 비밀을 형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창길이는 이전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나가 다니는 형을 눈치 챘던 것이였습니다. 형은 요새 마을 어디인가 숨어 있는 민청 형님들이 있는 데 다니는 거라고 창길이는 짐작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창길이는 형만 못하지 않게 미군놈들을 골탕 먹이는 일을 혼자 해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일을 인민 군대가 돌아 온 뒤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몰라도 좋다는 듯이 형은 손 짓을 하고 집 뒤를 돌아 나가 버렸습니다.

《형만치 나두 미군놈과 싸울테야.》

창길이는 혼자 이렇게 중얼 거렸습니다. 한낮 겨운 겨울 볕이 쟁그롭게 살구나무 밑으로 스며 들고 있었습니다.

3

아침 일찌기 우물에 나갔던 창길이는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자 울담에 삐라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놈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속이려고만 내 붙이곤 하던 그런 삐라가 아니였습니다. 우리 쪽에서 내 붙인 삐라였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 인민 군대가 진격해 나와 살인귀들을 몰아 낼 것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놈들에게 쌀 한 알, 물 한 방울 주지 말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참고 견디자는 내용의 삐라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백정놈의 새끼들 두구 봐라—》

삐라를 다 읽은 창길이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땅 치고 돌아 섰습니다. 창길이는 마을 길로 통통 뛰여 다니며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벌써 읽었다는 듯이 턱을 끄덕거렸습니다.

창길에게는 새 기운이 솟았습니다. 창길이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새 기운들이 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개놈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끄떡 않을 걸—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인민 군대가 있어.》

말은 없었으나 창길이는 만나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런 속삭임을 듣는 듯 했습니다.

창길이는 뒤울안 살구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묻은 것을 파 보았습니다. 흙은 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길이는 매마른 흙을 고루어다가 딸기 상자를 고쳐 묻었습니다. 흙이 얼어 버리면 인민 군대가 갑자기 진격해 왔을 때 이내 딸기 상자를 들어 낼 수 없을가 봐 그 걸 념려했던 것이였습니다.

거리와 마을에는 자고 깨면 우리의 삐라와 표어가 골목마다에 나붙었습니다. 약이 오른 것은 놈들이였습니다. 미군놈, 《국방군》놈, 《치안대》놈이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루에 두 세 차례씩 마을의 집집을 모주리 뒤집곤 했으나 아무런 견디기도 들추어 내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마을 형님들과 아버지들을 닥치는 대로 붙들어 가려고 들었으나 기색이 보일 때마다 마을 형님들과 아버지들은 몸을 피하곤 했습니다. 놈들은 집집을 뒤져 량곡을 략탈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아저씨들과 아버지들은 량곡 가마니를 깊이 숨기고 놈들에게는 한 알의 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모두가 삐라의 가르치는 대로 놈들과 투쟁을 하는구나.》

창길이는 생각 할수록 마을 아저씨들과 아버지들이 믿어워졌고 자기도 한 몫 뽐내고 싶은 기운이 용솟음쳤습니다.

이 날 오후에도 창길이는 뒤울안에 있었습니다. 살구나무를 껴안고 두 발을 콩콩 굴렀습니다. 새 흙으로 다시 묻은 땅을 다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를 두 팔로 끼고 맴을 돌던 창길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문득 섰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옳지 !》

창길이는 마을'길로 뛰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창길이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땅 치고는 골목'길로 달음질쳤습니다.

4

아름이 넘는 검은 둥치를 가진 까마득히 솟은 땅버들이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가로 지른 철봉'대가 선 모서리에 이 나무는 서 있었습니다.

창길네 반 동무들이 창길이 나무라고 이름 지은 나무가 바로 이 땅버들이였습니다. 창길이 키의 세 곱을 더 오르도록 잔가지 하나 매듭 하나 없이 기둥처럼 밋밋한 둥치를 가진 나무여서 창길네 반 동무들은 누구하나 이 나무에 오를 념을 못냈습니다. 그러나 창길이 만은 나무 재비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부른 이름이였습니다. 창길이는 이 땅버들의 까마득한 끝가지에까지 오른 적이 여러 번이였습니다.

높이 높이 오르면 고개 넘어 창길네 마을이 보였습니다. 창길네 마을은 벌이 논으로 되던 해의 어느 늦은 봄날 곰나루 기계창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벌 가운데로 째운 물'길로 그냥 그냥 밀려 논마다에 물이 들어 차는 걸 창길이는 이 나무의 회친 다리를 얼싸 안고 서서 바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밑에서 기다리고 들 섰는 반 동무들에게 지금 누구네 논에 물이 불어가고 있다는 걸 다음 다음 가르쳐 주었습니다. 높이 높이 오르면 내를 건너 산 밑에 있는 정거장도 보였습니다. 벌에서 거둔 현물세 가마니를 가득 가득 실은 화차들이 검은 연기를 뿜는 기관차에 끌려 거리로, 로동자 아저씨들이 있는 공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창길이는 이 나무를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그리워졌고, 동무들이 그리워졌고, 공부하고 뛰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도, 운동장도, 땅버들도 미군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미군놈 파수병이 서서 창길이 또래들을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겨울을 맞은 땅버들은 잎새를 깡그리 떨구고 소복소복 줄기를 에워 싸고 우로우로 자란 가지들만이 바람에 샛보얀 손'길들을 서로 비벼가며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저 버드나무 끝에다가 빌어먹을 개놈들이 다 태운 줄 알고 있는…》 운동장 밖, 도랑 건너 밭 머리에 서서 땅버들을 바라 보고 있던 창길이는 그의 결심이 정해졌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발뚝 길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넘어 잔솔밭을 끼고 돌던 창길이는 멈칫 서 버렸습니다.

《임마— 임마》 창길이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형이 과수원 쪽에서 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오래간만에 보는 형이였습니다. 창길이가 잠든 뒤에 집에 들렸다가 깨기 전에 나가 버리곤 하는 형이였으니까요.

《어디 갔댔냐?…》

《학교에.》

《학교에?》

《운동장에 선 땅버들을 봐 두려 갔댔어.》

《땅버들이라구? 맘 놓구 돌아 다닐 때가 아니야, 놈들은 너 같은 애들두 까닭없이 막 잡아 족쳐—게다가 놈들의 사령부 앞을 어름거렸어?》

형이 념려해 주는 말이였으나 창길이는 하나도 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큰 모험을 결심한 창길이였으니까요.

《형, 형이랑이 붙인 거지? 마을에 나붙은 그 삐라들 말이야.》

창길이는 형 옆으로 다가 서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벙긋 웃을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 나 왜 땅버들을 보려 갔드랬는지 알아?》

《임마—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어서 집으로 가—》

《형, 나두 형이 해낸 그만한 일을 해낼테야, 놈들이 다 태운 줄 알고 있는 공화국기를 땅버들 꼭대기에 달테야—》

《뭐? 뭐라구?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니! 너 혼자서》 한편 놀라며 한편으로는 감탄하는 듯한 형의 얼굴을 창길이는 바라보듯 했습니다. 과수원 밑 돌각담을 끼고 석양이 비낀 숲 속으로 사라지는 형의 뒤'모양을 바라 보며 창길이는 자기의 결심을 형에게 이야기한 것이 잘한 일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5

별들이 메'잔등으로 가만가만 내려 앉는 듯한 밤이였습니다. 뒤울안 살구나무 밑에서는 아까부터 조그마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창길이가 살구나무 밑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길이는 들어낸 딸기 상자를 헤치고 고히 간직해 두었던 공화국기를 꺼냈습니다. 그 기'발을 낚시'대만큼 단단하고 긴 참대에다 달았습니다. 창길이는 기폭을 기'대에 달았습니다. 노끈을 혁대에 찼습니다. 준비는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창길이가 뒤울안을 나서려 할 때 형이 바쁜 걸음으로 창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 창길이는 놀라며 그러나 속삭임으로 웨쳤습니다.

《정말 달테냐?》

《죽는 일이 있더라두—왜 나뻐?》

형은 머리를 가로 흔들며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창길이 등을 몇 번이나 두드려 주었습니다. 《무사히만 해 내면 말야 창길일 형이 하는 일에 넣어 준댔어.》

《정말?》

《민청 형님들두 창길일 기특하다고 칭찬하였어!》

《민청 형님들이 날 알아 주어?》

《그러기에 날 보내 주었어, 협조하라구.》

둘이는 말 없이 메'둥을 타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멀리 학교 정문이 바라 보였습니다. 정문 옆 판자'집 앞에 미군놈의 파수가 등'불을 들고 서서 운동장으로 드나드는 자동차들이 정문을 지날제 마다 동을 쳐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등'불 빛이 모래 발과 숲을 어른어른 쓸어 갔습니다. 창길이와 형은 헤트라이트 빛과 신호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뚝 아래'길을 조심조심히 걸어 학교 운동장 모서리 건너 편 발뚝으로 다가 갔습니다. 도랑 건너 《창길이 나무》 땅버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 검은 줄기 사이로 넓은 운동장이 내다 보이고 교사에는 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튼튼히 먹어.》

형은 기를 맨 기'대를 창길이 등에 메워 주고 어린애를 업듯 노끈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나무의 맨 웃가지에 기'대를 이어 놀사린 노끈은 따로 창길이의 혁대에 서려 있었습니다.

《형이 있어 주어 더욱 기운이 나—》

이렇게 형에게 속삭이고 나서 도랑을 건너 운동장 모서리로 기여 든 창길이는 혀'바닥에 손'바닥을 문지르고는 둥치를 안고 기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감고도 줄창 사뿐 사뿐 기여 오르던 낯익은 나무였습니다.

바시락 소리 하나 없이 가벼운 창길이의 몸뚱이는 기듯이 우로우로 올랐습니다. 드디여 줄기를 에워 싸고 소복소복 자란 가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빛 총총한 하늘을 받침으로 아물 아물 보이는 검은 창길이의 몸뚱이를 올려다 보며 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개놈들 네놈들이 태우고 태운 공화국기를 래일 아침엔 네놈들의 이마'배기 우에서 발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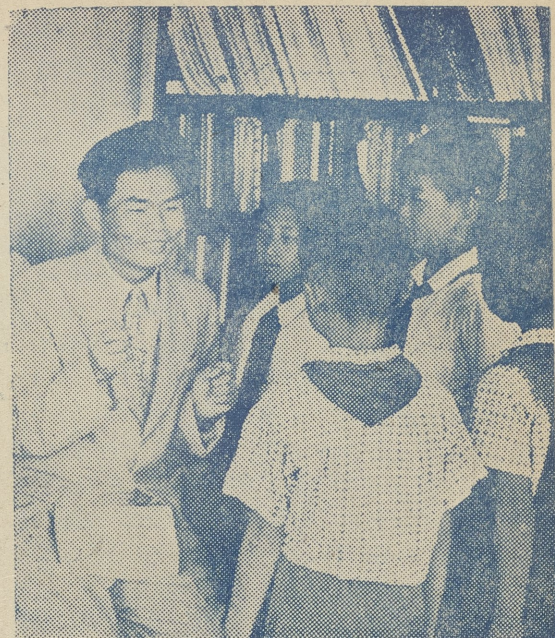
☆

맑고 푸른 아침 하늘을 받침하고 더욱 뚜렷하게, 기운차게 공화국기는 미군놈의 사령부 마당에 선 땅버들 꼭대기에서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공화국 기'발은 싸늘한 새벽 바람을 휘감아 안으며 마치 전투를 기다리는 전사의 영용한 모습처럼 기폭은 너울치고 있었습니다.

(1951년 소년 신문에서 전재)

동무들은 행복합니다

과학원 물리 수학 연구소

소장 리 재곤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논밭, 웅장한 공장과 정밀한 기계 설비를 비롯하여 오늘 날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은 사람들의 피와 땀에 의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도 지혜도 로동에 의하여 발달하였고 우리 사회 역시 사람들의 로동에 의하여 오늘과 같이 발전하였습니다. 근로 인민이 곧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일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

같이 로력을 들이여 일을 하더라도 연구하고 배우면서 일을 하여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대체로 모든 학문은 사람들이 일을 조리 있게 잘 하기 위하여 궁리하는 결과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일을 잘하여 인민의 생활을 더욱 행복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민의 생활과 동 떨어진 지식은 절름발이 지식입니다.

봉건 시대에 어떤 《량반》은 《글을 읽노라》고 차리고 앉아서 소나기에 보리 멍석이 떠 내려 가는 것을 거둘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량반》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을 잘 하기 위하여 배워야 하며 또 잘 배우자면 일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조선 로동당은 언제나 실지 사업을 통하여 청 소년들을 훌륭한 일'군으로 길러 내고 단련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하는 동무들에게 배움의 길이 널리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도 초 고중을 졸업한 동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능수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일하며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 때문입니다. 해방 전에 일제는 조선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이 공부를 하자면 우선 돈이 있어야 하였고 설사 돈이 있다 하여도 일제는 자기들의 심부름하는 데나 소용되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였습니다. 나는 자연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일제는 실험을 하고 기계를 만져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나 직장에는 조선 사람을 들여 놓지도 않았습니다.

중학을 졸업한 나는 하는 수 없이 부기원이 되여서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되는 수학을 자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습을 하는 데도 놈들의 비웃음과 천대를 참아 가야 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서울에서 겪은 생활도 그만 못하지 않게 곤난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탄압을 반대하여 밤낮으로 투쟁하여야 하였습니다. 대학 교원이라 하여도 끼니를 잇는 것이 힘들었으므로 공부보다는 먹고 입을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는 공화국 품 속으로 들어 와서야 비로소 내가 바라던 것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이야 말로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죄다 배울 수 있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동무들의 로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동무들에 대한 나의 부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학습하는 목적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참된 아들딸 답게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국에 이바지할 목표를 똑똑히 정하고 그를 향해 꾸준히 배우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래일의 참된 사회주의 건설자로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소년단 생활에 충실하며 김 일성 원수님을 선두로 한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본받아 용감하고 참을성 있고 완강하게 학습하여 우리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합니다.

세째로 많이 아는 것보다 우선 똑똑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식 하나를 새로 배울 때에는 그 공식이 전에 배운 어느 공식에서 나오는가? 그 공식은 어떤 경우에 들어 맞고 어떤 경우에는 들어 맞지 않는가? 그 공식과 다른 공식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그 공식을 실지 써 보면 잘 맞는가? 이와 같이 여러 모로 따져서 그 새 공식이 자기의 피와 살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건성건성 열 페지 읽는 것보다 이와 같이 잘 따져서 한 페지, 심지어는 한 줄을 읽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나는 전에 교원 검정 시험을 치르려 갔을 때에 만난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아무개가 쓴 무슨 교과서요, 누가 쓴 어느 참고서요 하고 주어 세는 것을 듣고 나는 그가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인가 했더니 그 사람은 시험에 락제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책을 대충대충 읽는 사람이였던 모양입니다. 동무들은 이런 나쁜 습관이 붙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네째로 시간을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 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사람은 틈이 있어도 공부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까지도 잘 살려야 하며 또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똑똑히 갈라서 절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면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공부를 하면서 잡담을 하는 사람, 책을 보면서 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잘 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무들이 얼마나 큰 전문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 인민은 동무들의 빛나는 앞날을 축복하면서 동무들에게 크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행복합니다.

동무들의 행복은 오직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렵니다

원산 제 7 중 학교 대
제 7분단 김 창자

내가 열 살 나던 해 어느 날입니다. 내 얼굴에는 오래 전부터 씻어 버릴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날 한 동무에게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분했던지 모릅니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우고 집에 뛰여 와 엎드려 울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 때까지 나의 상처의 래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그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본놈 세상때야 어디 나라 없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 봤니.……네가 두 살 나던 해 마을에는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가 휩쓸었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신이 되였단다. 그 때 너도 천연두를 앓았는데 의사에게 뵈이자니 돈은 없고……결국에는 오래 고생하다 겨우 죽지 않고 살아 난 셈이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일제놈들이 못 견디게 미워났습니다. 이와 함께 나는 오늘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기쁨이 한없이 컸습니다.

《그렇다, 나는 의사가 되자, 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복무하자!

근로 인민들이 튼튼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게 힘쓰자.》이렇게 나는 굳게 마음 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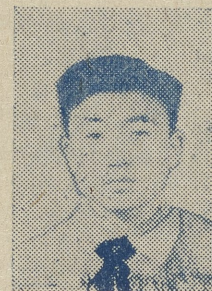
나는 선반공이 되렵니다

자강도 고풍군 동도 중 학교 대
대 벽보 주필 리 경옥

나는 매일 라지오와 신문에서 그리고 직접 내 눈으로 천리마로 달리는 사회주의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어서 커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자. 그리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군 합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 가면 농촌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고 싶었고, 림산 사업소에 가면 벌목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천 기계 공장을 견학 갔다가 그 곳 어느 민청 형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하나의 희망을 확고히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그 형님은 어려서부터 기계 다루기를 좋아했고 학교 시절에는 공작 크루쇼크원으로 열심히 공작도 하며 선반공이 될 것을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와 꼭 같은지 나도 몹시 기뻤습니다.

선반공이 되려는 희망을 안고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군대에 나간 나의 형님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의 희망은 결코 사회주의 조국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너는 기계 다루기를 퍽 좋아 했지. 더구나 너는 지금 학교에서 공작 크루쇼크원이라지!

네 재간에 알맞는 희망을 갖는다면 너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더 훌륭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제대되면 채광부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너도 아는 일이지만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좋아 했니…》

그 후 나의 형은 제대되여 덕흥 광산 채광부가 되였습니다.

나는 형님처럼 품은 희망을 꺾지 않고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로동 계급의 대를 이어 기계의 어머니인 선반기를 다루는 선반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들을 적당하게 나란이 옮겨 말이 되도록 하시요.
대체 무슨 말이 씌여 있을가요?

7호 현상 문제 해답

편집부는 7월 15일 현재로 7호 현상 문제 해답 1,106 통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해답이 맞은 924통을 골라 내여 도 별로 추첨한 결과 다음 30 명을 당선시킵니다.

(1) 의 해답

4 해란 파리. 모기. 이. 쥐 등 네 가지 해로운 동물을 말한다.

파리는—적리, 코레라, 장티브스와 같은 병을 전파하며
모기는—일본 뇌염, 마라리야 등을 전파한다.
이는—발진티브스, 재귀열 등을 전파하며
쥐는—페스트와 같은 병을 전파한다.

(2) 의 해답

ㄱ. 여덟 시가 되였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ㄴ. 창문을 열어 공기를 갈아 넣어야 한다.
ㄷ. 엎드려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
ㄹ. 옷걸개에 옷을 걸어 놓아야 한다.
ㅁ. 아직 이도 닦지 않았고 세수도 하지 않았다.
ㅂ. 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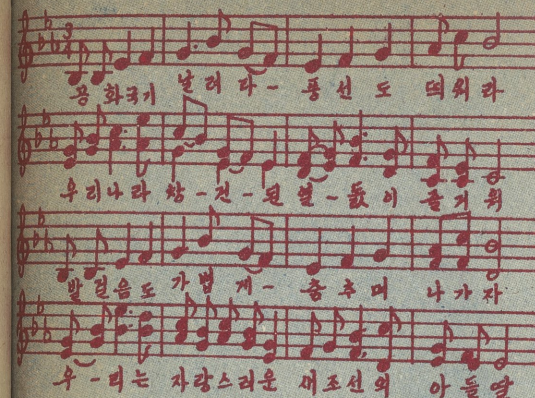
당선된 동무들

도	학교	이름
평양	제4 중 학교	류 철수
평양	제56 중 학교 인민반	신 상균
강원도	천내군 구포 중 학교	정 완수
강원도	회양 제 2중 (인민반)	장 정희
강원도	법동군 룡포 인민 학교	김 억석
평남도	강서 제2 중 학교	리 능수
평남도	평원 고중(인민반)	김 정복
평남도	문덕 제1 중(인민반)	리 인오
함북도	라남시 제5 중 학교	조 규필
함북도	경원 제6 중(인민반)	박 종식
함북도	온성 제6 중 학교	박 세철
자강도	강계시 서산 중 학교(인민반)	황 정숙
자강도	시중 고중(초급반)	김 광훈
자강도	강계시 외룡 중 학교(인민반)	박 창복
황북도	사리원시 철산 인민 학교	조 동희
황북도	연산군 대군 인민 학교	김 학인
함남도	수동 제5 중(인민반)	최 경식
함남도	함흥 제1 인민 학교	고 춘자
함남도	홍원군 전진 중학교	최 한용
량강도	삼수 제4 중 학교	한 홍성
량강도	보천 제9 중 학교	리 홍주
량강도	갑산 제7 중 학교	리 정훈
황남도	태탄군 성남 인민 학교	조 신호
황남도	은천 제4 중(인민반)	심 경철
황남도	장연군 락연 중 학교	문 태복
평북도	정주 제6 중 학교	백 태현
평북도	동림 제3 중 학교	고 희일
평북도	룡천 제13 중 학교	장 희룡
평북도	신의주 제6 중 학교	강 영호
함남도	영흥군 진흥 중 학교	리 광조

1958년 8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8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9호 (총107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1038 값 25원 80,000부 발행

공화국 열돐 맞이 노래

박 팔양 시
리 면상 곡

공화국기 날려라— 풍선도 띄워라
우리나라 창—건—된 열—돐이 즐거워
발걸음도 가볍게— 춤추며 나가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새조선의 아들딸
(후렴) 새 나 라—의 따 뜻— 한
품속에서 자라는 —
우 리 들 의 높은 영— 예
자—랑 열 쳐— 자 —

2.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에 뭉쳤다
가슴 우에 빛나는 붉은 빛 넥타이
새 나라는 새 희망 안기여 주셨네
우리는 그 품속에 무럭무럭 자라네
(후렴)

3. 송이송이 꽃마다 감사를 담아라
우리 나라 통일과 행복을 위하여
천리마로 달리는 아저씨들에게
공화국 열돐 맞이 꽃다발을 드리자
(후렴)

누가 좋고
누가 나쁜가 ?